AN EXPLORATION OF CHRISTIAN FEMINIST SPIRITUALITY AND SPIRITUAL DISCIPLINES OF KOREAN PASTORS' WIVES: A QUALITATIVE STUDY FOR HEALING AND TRANSFORMATION

한국 목회자 배우자들의 기독교 페미니스트 영성과 영성 훈련 탐구: 치유와 변화를 위한 질적연구

A Practical Research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Huiyeol Yang

May 2022

This Practical Research Project completed by

Huiyeol Yang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th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Namjoong Kim, Chairperson
Hyun Sun Oh

Dean of the Faculty
Andrew Dreitcer

May 2022

ABSTRACT

AN EXPLORATION OF CHRISTIAN FEMINIST SPIRITUALITY AND SPIRITUAL DISCIPLINES OF KOREAN PASTORS' WIVES: A QUALITATIVE STUDY FOR HEALING AND TRANSFORMATION

by

Huiyeol Yang

In Korean families and churches, patriarchal Confucian culture is deeply rooted. The person in the most ambiguous position in these families and churches is the pastor's wife. So, I decided to investigate how experiences of the pastors' wives in Korean families and churches form their identity. In this study, I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using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which is among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at explore the experiences of pastors' wives. In addition, the experiences of pastors' wives discover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feminist theology and feminist spirituality. I was found that pastors' wives had complex internalized identities, objectified identities, oppressed identities, and confused identities due to the patriarchal family and church in Korea. On the one hand, among these identities, pastors' wives were seeking a breakthrough through spiritual training. So, I proposed feminist spirituality training by grafting feminist spirituality to the existing traditional Christian spirituality training. Through this, it was hoped that the wives of pastors would form a self-directed identity as a woman and a human being and become the agents of healing and change in the patriarchal families and churches in Korea.

KEYWORDS: Pastor's Wife, Identity, Feminist Theology, Feminist Spirituality, Spiritual Disciplines

국문 초록

한국 목회자 배우자들의 기독교 페미니스트 영성과 영성 훈련 탐구:

치유와 변화를 위한 질적연구

by

Huiyeol Yang

한국의 가정과 교회는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 잡은 공간이자 집단이다. 이러한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모호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목회자 아내이다. 그래서 나는 목회자 아내들이 한국 가정과 교회에서 겪는 경험이 이들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시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나는 본 연구에서 목회자 아내들의 경험을 탐구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또한 심층 면담을 통해 발견한 목회자 아내들의 경험을 페미니스트 신학과 페미니스트 영성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목회자 아내들은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정과 교회로 인해 내재화된 정체성, 대상화된 정체성, 억압당하는 정체성, 혼란을 겪는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정체성 가운데 목회자 아내들은 영성 훈련을 통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기존의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 훈련에 페미니스트 영성을 접목함으로써 페미니스트 영성 훈련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목회자 아내들이 한 여성이자 한 인간으로서 자기 주도적인 정체성을 형성하여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정과 교회에서 치유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키워드: 목회자 아내, 정체성, 페미니스트 신학, 페미니스트 영성, 영성 훈련

SUMMARY

The position of the pastor's wife in Korean homes and churches is only ambiguous. Although she is not recognized as a pastor, she is required to have the same competency as a pastor. However, they are not treated like pastors, and they are not in an atmosphere where they can freely lead a religious life like ordinary lay people. This ambiguity also came to my wife. Then, while taking a spiritual formation lecture a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s Doctor of Ministry program in practical theology, I had a small group with pastors. There was a lot of hurt and pain. Based on these stories, what kind of life is the pastor's wife experiencing in a Korean home or church? What kind of identity is formed and internalized based on the pastor's wife's experiences? Lastly, what is a way for a pastor's wife to have a healthy identity? I started this research with a question and a sense of problem.

For this study, I selected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at seeks to explore the nature of a phenomenon by revealing the phenomenon experienced by the research participants as it is among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addition, participants were selected to hear the experiences of the wives of pastors in Korea. Among the various denominations in Korea, nine wives of pastors from six denominations were selected for in-depth interviews by age. Through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the experiences of pastors' wives in Korean homes and churches were derived, which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collage analysis process and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feminist theology and spirituality. As a result, Korean pastors' wives formed their identities in the form of 'identities internalized in the patriarchal system,' 'objectified identities,' 'oppressed identities,' and 'confused identities' in their homes, churches, and community spiritual training. In this study, noting the fact that basic, traditional

spirituality training has become a channel for instilling male-centered spirituality, we proposed feminist spirituality training based on feminist spirituality so that pastors' wives can form self-directed healthy identities. First, it is a prayer training to write a prayer and pray using the symbolic language of the female imag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a new gender. Second, reading the Bible containing both women's oppression and liberation experiences from a feminist theological point of view, and training it in Labyrinth's meditation method. Lastly, as a way to dismantle the tradition of hierarchies and domination, there is training to offer horizontal family worship.

Such feminist spirituality training will be a practical alternative for pastors' wives, who struggle with ambiguous identities in Korea's patriarchal families and churches, to allow them to form a self-directed identity as a woman and human being. However, since this is a study that started from a microscopic point of view limited only to individuals,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practical study that can give healing and change to the home and church from a macro point of view. However, if this feminist spirituality training is extended to all members of the church, including the pastor's wife, in solidarity with the church, it will be an opportunity for healing and change not only for the pastor's wife but also macroscopically for all pastors and members of the Korean church.

국문요약

한국의 가정과 교회에서 목회자 아내의 위치는 모호하기만 하다. 목회자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목회자만큼의 역량을 요구받고 있다. 그렇다고 목회자만큼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며, 일반 평신도처럼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이러한 모호함은 나의 아내에게도 찾아왔다. 그러던 중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영성 형성 강의를 수강하던 중에 목회자들과 소모임을 갖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모든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아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었다. 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국 가정과 교회에서 목회자 아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경험하고 있을까? 목회자 아내가 경험한 내용에 기반하여 어떠한 정체성이 형성되고 내면화되어 있을까? 마지막으로 목회자 아내의 건강한 정체성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질문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했다.

나는 이 연구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선택했다. 그리고 한국 목회자 아내들의 경험을 듣고자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는데, 한국에 존재하는 여러 교단들 중 6개 교단의 목회자 아내 9명을 연령별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반 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통해 목회자 아내들이 한국 가정과 교회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도출하였는데, 이를 콜라이지 분석 과정에 따라 분석하고 페미니스트 신학과 영성의 관점으로 해석했다. 그 결과 한국 목회자 아내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가부장제에 내재화된 정체성', '대상화된 정체성', '억압당하는 정체성', '혼란을 겪는 정체성'의 형태로 정체성이 형성되었고, 이에 대한 탈출구로서 개인적인 영성 훈련과 공동체적 영성 훈련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영성 훈련이 남성 중심의 영성을 주입하는 통로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주지하며, 페미니스트 영성을 기반으로 한 페미니스트 영성 훈련을 제안함으로써 목회자 아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했다. 첫째, 신 젠더 이해를 기반으로 여성 이미지 상징언어를 활용하여 기도문을 작성하고 기도하는 기도 훈련이다. 둘째, 여성 억압과 해방 경험을 모두 담고 있는 성서를 페미니스트 신학 관점으로 읽고, 이를 래버린스 묵상방법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계와 지배의 전통을 해체하는 방법으로 수평적 가정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영성 훈련은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정과 교회에서 모호한 정체성 가운데 갈등을 겪는 목회자 아내들이 한 여성이자 한 인간으로서 자기 주도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실천적 대안이 될 것이다. 다만 개인에게만 국한되어진 미시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연구이다 보니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정과 교회에 치유와 변화를 줄 수 있는 실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페미니스트 영성 훈련을

교회와 연대하여 목회자 아내를 비롯해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하여 훈련한다면, 목회자 아내만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치유와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I

서론(Introduction)

A. 문제 제기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이다. 아내는 나와 결혼하여 수식어가 붙었는데, 그 수식어는 목회자 아내였다. 이는 여러 갈등 상황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유는 목회자 아내라는 역할이 모호한 위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은 목회자 아내를 평신도로 보지 않고 목회자 수준의 소양과 능력을 요구한다. 목회자 아내는 성도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목회자로서 정체성을 갖추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성도들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들은 목회자가 아니기에 목회자로서 권한과 의무가 없다. 그렇다고 평신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배우자인 목회자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로 여겨지는 모호함이 있다. 이러한 목회자 아내들에 대해 김애란은 "가정과 교회 구성원들로부터 현숙하고 자애로운 역할을 기대 받고 있으며, 교회 구성원들도 목회자의 아내가 사모로서 교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1]고 말한다. 즉 정체성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목회자 아내들은 그 위치가 모호하기만 하다. 이 모호함에 대해 샤리 토마스(Shari Thoma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모호함(ambiguity)은 사역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이다. 가령, 교회 조직안에서 목회자 가족들의 위치는 모호하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의 가족 구성원들은 직간접적으로 교회의 일에 다 참여하게 된다. 이때 교인들은 그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렇듯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그

[1] 김애란, "교회 부교역자 아내의 역할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MA thesis, 고신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2011), 1.

> 아내와 자녀들은 그들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요구받는 기대가 있다. 그런데 목회자의 가족들은 교인들이 요구하는 기대의 수준을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이런 역할이나 기대 수준에 대한 모호성은 목회자의 아내에게 고도의 스트레스를 준다.[2]

토마스(Thomas)의 설명대로 아내 역시 이러한 모호함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혼란 가운데 있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회자 부부와 위계 구조에 있었다. 일반 회사라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위계 구조만이 형성되었을 텐데, 한국교회의 특수한 문화에서는 위계 구조 관계에 있는 담임 목회자 부부와 연관되지 않을 수 없었다. 더 나아가 가부장제 문화에 익숙한 교인들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처신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 고민하도록 만들었다.

아내의 고민을 목도하는 가운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영성 형성 강의를 수강 중에 목회자들과 소모임을 갖는 시간이 있었다. 그때 내가 발견한 공통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국교회에서 목회자 아내는 '사모'(師母)로 불린다. "'사모'(師母)란 목회자인 남편과 결혼해서 목회자 아내가 된 사람들을 일컫는다."[3] 국립어학원에 따르면 사전적으로도 사모를 '스승 부인' 또는 '목사 부인'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4] 이처럼 '사모'(師母)로 불리고 있는 목회자와 아내의

---

[2] Shari Thomas, "10 Things the Woman Married to Your Pastor Wants You to Know," *TGC*, last modified August 10, 2018, https://www.thegospelcoalition.org/article/10-things-woman-married-pastors-know/.

[3] 주희은 and 박승민, "목회자 사모가 인식하는 결혼 만족도와 역할 스트레스와의 관계: 영적 안녕감의 조절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vol. 29, no. 3 (August 2018): 292.

[4] 국립어학원 표준국어대사전, "사모," *문화체육관광부*, accessed April 13, 2021, https://www.korean.go.kr/front/search/searchAllList.do.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자연스럽게 나누었다. 이는 목회자 아내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였다. 나는 목회자 아내가 겪고 있는 경험들에 대해 페미니즘 관점에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페미니즘에 대해 강남순은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페미니즘은 첫째,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사회-정치적 권리를 옹호하는 이론을 지칭한다. 둘째,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조직화된 운동을 말한다. 셋째, 집단으로서의 여성의 주장들과 그 여성들이 창출해내는 이론들을 가리킨다. 넷째, 여성의 힘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넓은 의미의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믿는 신념 등을 지칭한다.[5]

강남순은 21세기 페미니즘을 여성을 넘어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페미니즘은 여성도 인간이라는 급진적 사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페미니즘의 도착점은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는 급진적 사상이어야 한다."[6] 이러한 페미니즘 관점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목회자 아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한 여성이자 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가정과 교회에서 목회자 아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경험하고 있을까? 목회자 아내가 경험한 내용에 기반하여 어떠한 정체성이 형성되고 내면화되어 있을까? 마지막으로 목회자 아내의 건강한 정체성 형성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질문을 바탕으로 목회자 아내가 가정과 교회에서 겪는 경험과 그에 따른 정체성 형성에 주목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과 그 경험으로 인해 내면화 된

---

[5] 강남순, *젠더와 종교* (경기: 동녘, 2018), 44.

[6] 강남순, *페미니즘 앞에 선 그대에게* (경기: 한길사, 2020), 62.

정체성 형성 이해를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질적 연구 방법으로써 심층 면담을 실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페미니스트 영성을 기반으로 한 영성 훈련 과정을 제안할 것이다.

이러한 질문과 분석은 가정과 교회에서 목회자 아내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고 그 경험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시켜 나가는지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페미니스트 영성을 기반으로 목회자 아내들을 위한 영성 훈련을 제안하여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목회자 아내로서 가정과 교회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은 비단 나의 아내와 일부 목회자 아내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한국교회 목회자 아내들 모두가 경험하는 갈등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단순하지 않다. 기독교 가정 상담 기관 하이패밀리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 아내 대다수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 설문을 받은 369 명 중 91.1%인 336 명이 이와 같이 응답했다. 11 명 중 10 명꼴이다. 270 명이 "그저 그렇게 산다"고 했고 나머지 66 명은 "불행하다"고 했다. "행복하다"는 아내는 전체의 8.9%(33 명)로 11 명 중 1 명이었다.[7] 이는 다소 순화한 감정적인 표현일 뿐 목회자 아내의 심리적인 상태를 전문적으로 조사한 결과 그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다. 한국기독교 상담심리치료학회가 목회자 아내(726 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절반 이상(59.9%)이 우울 증세를 보였고 그중에서 10%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8] 이처럼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목회자 아내들은 그

[7] 강창욱, "목사님, 아내에게도 봉사 좀 하시죠," *국민일보*, September 28, 2011, http://m.kmib.co.kr/view.asp?arcid=0005401309.

[8] 장열, "사모의 한숨,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중앙일보*, February 16, 2015,

상태가 호전되기 보다는 시간이 지날 수록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뉴스앤조이에서 기획한 *사모를 만나다*에서는 몇몇 목회자 아내들의 고충을 연재했는데, 한 목회자 아내에 의하면 사모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대로 자신을 만들어갔으며, 엄마이자 사모의 역할 때문에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했다고 응답했다.[9]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들이 목회자 아내들에게 일어나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강남순은 오늘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탐구할 때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질문을 하며 문제의 원인 파악과 해결 방안에서 빗겨갈 때가 많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만 머무는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 깊은 고뇌 가운데 근본적인 것에 질문하는 뿌리 질문들(root questions)을 던지라고 말한다.[10] 강남순은 이러한 뿌리 질문들(root questions)을 '급진적'이라고도 표현했는데, '급진적'의 영어 표현인 'radical'은 급진화의 의미를 잘 드러낸다. 'radical'이라는 말이 바로 '뿌리로 돌아간다(returning to the root)'는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급진화는 기존의 구조 위에 몇 가지를 덧붙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뿌리'로 들어가서 철저한 재검증과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한다.[11] 이는 곧 목회자 아내가 왜 이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경험의 뿌리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79419.

[9] 곽승연, "목회자와 결혼했을 뿐인데, 나는 '신앙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뉴스앤조이*, February 28, 2020,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65.

[10] 강남순, "Gender-Related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the Korean Church and Society" (Zoom lectur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CA, May 1, 2021)

[11] 강남순, *21 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경기: 동녘, 2018), 193.

따라서 본 연구는 목회자 아내들이 경험하는 현상의 본질을 페미니스트 신학 관점에서 이해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 과정은 직관적 현상학으로써 경험 이면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해서 뿌리 질문들(root questions)을 던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목회자 아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인 가정에서의 경험은 어떠하며 그 가운데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둘째, 목회자 아내가 가정에서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활동하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떠한 경험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지 질적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해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가정과 교회에서 목회자 아내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페미니스트 신학 관점으로 해석할 계획이다. 분석한 결과는 페미니스트 영성을 기반으로 한 영성 훈련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목회자 아내들이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B. 논지에 대한 토론

페미니스트 신학 관점에서 한국의 가정과 교회는 유교적 문화권에 속한 가부장제 문화이다. 가부장 개념은 가족 우두머리인 가장(家長)을 지칭하는 말로, 부계사회에서 이러한 지위를 갖는 사람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을 가부장(家父長)이라고 하고, 가부장 지배체제를 가부장제라고 말한다.[12] 이는 아버지라는 피라미드 구조 상층부를 중심으로 어머니와 자녀들이 하위층에 놓이는 이분법적 위계 구조다. 이에 강남순은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은 그 남성의

[12] 성윤희 and 정주리,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차별적 인식과 남성 성역할 갈등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vol. 20, no. 1 (June 2019): 548.

절대적 권위에 종속되는 존재들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가족 구성원들 중에 권력이 없는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개인으로서 개체적 권리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위계적 권력구조 속에 매몰되고 만다고 한다.[13] 이러한 현상이 한국교회 안에 그대로 답습되어져 가부장적 교회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강남순은 이에 대해 가부장제적 교회는 여성이 남성보다 본질적으로 열등하다고 전제하고 위계적으로 형성되며, 여성은 하부구조에 남성은 상부구조에 있다고 말한다.[14] 이는 한국의 가정과 교회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고 상호의존성을 상실한 이분법적 젠더 위계 구조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혜란은 이분법적 양극화는 여성이 남성에 종속적이라는 젠더의 위계를 창조한다고 말하며 이원론적 관점에서는 여성과 남성은 근본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불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말한다. 이러한 결정론적 세계관은 남성의 우월성을 존재론적으로 정당화하며 그 질서를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즉 사물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지적한다.[15] 결국 가부장제 틀 안에서 형성되어진 한국의 가정과 교회는 지배 논리에 의한 젠더 위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은 억압의 다섯 가지 측면을 말하면서 그중에서도 젠더 착취에 대해 언급한다. 먼저 영(Young)은 “착취 개념에 담겨 있는 핵심 통찰력은 한 사회집단의 노동 산물이 타 집단에게 이득이 되도록 이전되는 항상적 과정을 통해서 억압이

---

[13]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즘 신학*, 300.
[14]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경기: 동녘, 2018), 126.
[15] 김혜란, *상호의존성: 포스트식민주의 여성주의 실천신학* (서울: 동연, 2020), 35-36.

생겨난다는 것이다."[16] 항상적 과정이란 가진 자들의 권력, 지위, 부가 유지되고 증강되게끔 가지지 못한 자들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소모되는 체계적 과정을 통해서 권력 및 불평등 관계가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것을 뜻한다.[17] 그리고 "젠더 착취에는 물질적 노동의 과실이 남성에게 이전된다는 것, 그리고 여성의 양육 및 성적 에너지가 남성에게 이전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18]고 말한다.

그러므로 목회자 아내들이 경험하는 현상들을 페미니스트 신학 관점 가운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목회자 아내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강남순에 따르면 페미니즘은 여성도 인간이라는 급진적 사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페미니즘의 도착점은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는 급진적 사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신학 관점을 통해 목회자 아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한 여성이자 한 인간으로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관심이 있다. 이에 대해 임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본 연구에 깊은 성찰을 던져준다.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는 자신이 존재하는 그 존재성을 자신 안에 가지는 까닭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한 자"[20]라고 한다. 이는 곧 목회자 아내의 정체성이 다른 존재자에 의해서 규정되어지고 도구화 되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자로서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

[16] Iris Marion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trans. 김도균 and 조국 (서울: 모티브북, 2018), 124.

[17]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24.

[18] Young, 125.

[19] 강남순, *페미니즘 앞에 선 그대에게*, 67.

[20] 박남희, *레비나스, 그는 누구인가* (서울: 세창출판사, 2019), 50.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 아내들은 자신이 존재자로서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도구화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강남순은 여성들이 평등한 위치에서 교회 일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이를 '불평등 구조'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21] 이 현상을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의 내재화'(Women-Internalization of Patriarchal values)라고 말하는데, 가부장제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그대로 이를 수용하여 가부장제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결국 자기 자신도 모르게 대상화시키는 것이다.[22] 따라서 페미니스트 신학 관점은 목회자 아내들이 주체적인 존재로 나아가도록 돕는 이론의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영성이 실천 영역의 기반이 되어 줌으로서 목회자 아내들의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강남순은 페미니스트 영성은 전통적인 이분법적 사고와 남성의 여성 지배라는 가부장제적 가치구조 가운데 여성이 배제되는 것을 극복하고 그동안 억눌려왔던 여성의 힘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23] 이는 남성 중심의 신 개념을 탈피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여성 억압의 경험과 해방의 경험을 중시하고 이분법적인 방식과 위계적이고 종교적인 전통 예식을 거부하고 여성 '섹슈얼리티(sexuality)'[24]를 긍정하며 더 나아가 한 여성이자 한 인간으로서 자기 주도적 자아 정체성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다.

---

[21]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64-65.

[22] 강남순, "Gender-Related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the Korean Church and Society."

[23]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232.

[24] 이재경 et al., *여성학* (서울: 미래인, 2014), 88.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첫째, 성적 욕망(erotic desire)이나 정서, 판타지, 성적 매력을 의미한다. 신체적 영역을 넘어서 정서, 심리, 무의식 차원의 심층적 의미 구조들로 성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둘째,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인가, 이성애자인가, 트랜스젠더인가와 같은 성과 관련된 자기규정이나 성적인 삶의 스타일을

그러면서 강남순은 “페미니스트 영성 추구는 성차별주의와 가부장제적 전통과 역사에 의해 왜곡되고 분열된 여성들이 그러한 왜곡을 넘어서서 한 인간으로서 진정한 자기를 찾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25]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에서 영성학을 가르치고 긍휼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프랭크 로저스(Frank Rogers Jr.) 역시 우리가 긍휼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가장 나 다운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26]

그래서 본 연구에서 이러한 신학 토대를 바탕으로 재해석하여 목회자 아내들을 위한 페미니스트 영성 훈련 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목회자 아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하는 여러 현상들을 페미니스트 영성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이자 주체적인 존재로 세워지고 타자에게는 통전적인 인간으로 존중받기를 기대한다.

C. 사용할 용어들의 정의

1. 정체성(Identity)

김선하는 정체성(Identity)의 기준에 대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나 몸과는 별개로 이성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 자아(ego)가 된다”[27]고 말한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식이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정신이다. 또한 홍용인에 따르면, “정체성은

말한다. 셋째, 성적 지위(sexual status)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특정한 성적 정체성이나 관행, 욕망에 부여되는 지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이성애 제도 내에서 이성애자는 동성애자보다 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린다. 가부장적 성 규범에서는 성적으로 개방적인 여성보다는 성경험이 없고 순진한 여성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섹슈얼리티는 이처럼 성과 관련된 위계와 차별화된 지위를 포함한다.”

[25]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240.

[26] Frank Rogers Jr, “Liberating Spiritual Formation Toward Wholeness and Reconciliation” (Zoom lectur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CA, November 1, 2021)

[27] 김선하, “인격적 정체성과 자기성,” *철학논총* 31 (January 2003): 38.

개인적인 이미지와 역할에 의한 이미지로 개인의 정체성이 정의된다."[28] 여기서 개인적인 이미지는 단어 그대로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신이 형성시킨 이미지이다. 반면에 역할에 의한 이미지는 어떠한 위치와 공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서 타자에 의해서 규정되고 형성되어지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동일하게 황미경은 정체성이 자신에 대해서는 주관적이면서도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 이중구조의 존재 양식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 개인의 정체성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과 타인의 반응에 영향을 받으며 발달한다고 말한다.[29]

이러한 정체성 형성의 특징은 한국 문화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유익한 것보다는 무익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베티 프리던(Betty Friedan)은 "낡은 관습과 여성성의 신화가 주는 새로운 매력은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성장의 길, 즉 인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길을 봉쇄해버렸다"[30]고 규정한다. 특히 모든 한국 가정과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한국 가정과 교회는 인간이라는 존재 양식을 묵살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민지는 교회 구성원들이 여성의 역할을 '어머니' 혹은 '아내' 정도로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어머니와 아내로서 여성 역할론이 매우 자연스럽게 여겨져 온 교회 환경 때문이라고 말한다.[31]

---

[28] 홍용인,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의 돌봄(Caring)의 개념으로 본 목회자 아내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 (December 2010): 347.

[29] 황미경, "부교역자 사모의 정체성을 위한 상담 연구," *연세상담코칭연구* 9 (March 2018): 117.

[30] Betty Friedan, *The Feminine Mystique 여성성의 신화*, trans. 김현우 (서울: 갈라파고스, 2018), 126.

[31] 이민지, *언니네 교회도 그래요?* (경기: 들녘, 2020), 60.

이처럼 두 가지의 이미지, 두 가지의 존재 양식을 지니고 있는 정체성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의식이다. 그래서 한 인간으로 존중되기 위해서는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회자 아내들이 한 여성이자 한 인간으로서 자기 주도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고자 한다.

2. 페미니즘(Feminism)

페미니즘에 대해 정희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페미니즘은 협상, 생존, 공존을 위한 운동이다. 여성운동은 남자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 보다는 남성의 세계관과 경험만을 보편적인 인간의 역사로 만드는 힘을 조금 상대화 시키자는 것이다. 남성의 삶이 인간 경험의 일부 이듯,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의 경험도 인간 역사의 일부임을 호소하는 것이다.[32]

이러한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는 다른 페미니스트 학자들과 일맥상통한다. 장필화는 페미니즘에 대해 "여성도 그 특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현실 분석과 미래 전망에 대한 논의 체계이며 실천이다"[33]라고 정의한다. 이는 페미니즘이 기존의 남성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입지를 박탈하고, 여성의 위치를 고양시키려는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34]는 일반화된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성찰하는 입장에서 남성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잠재적인 협력자로 여긴다. 이러한 페미니즘을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페미니스트(Feminist)라고 한다.

---

[32]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서울: 교양인, 2013), 50.
[33] 장필화 et al., *페미니즘, 리더십을 디자인하다* (경기: 동녘, 2017), 28.
[34] 이희원 et al., *페미니즘: 차이와 사이* (경기: 문학동네, 2012), 50.

그런데 이러한 페미니즘은 단순히 이론으로 국한되어 지적 자산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그렇다고 행동주의에 국한되어 과격한 여성 인권의 영역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이재경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페미니즘은 하나의 고정된 의미나 실체를 가진 것이기보다는 다양한 갈래의 이념적 토대와 관점을 견지하는 사상, 이론, 행동주의(또는 운동)로 구성된 묶음들이다."[35] 그래서 페미니즘을 어느 특정 젠더를 위한 것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모든 인간과 자연의 존엄성을 위한 용어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3. 가부장제(Patriarchy)

강남식에 의하면 "가부장제는 여성학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이 용어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가 개별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구조화되어 있음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36] 또한 이재경은 가부장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 남성에게 권력이 속해 있고 지배적 위치를 갖도록 하는 가족, 집단, 사회, 여성을 희생하여 남성에게 특권을 주는 보편적인 정치구조로 남성 지배와 동의어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한 역사상의 사회구조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가부장적 권력은 가족, 경제, 언론, 종교, 법,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발휘한다.[37]

이러한 가부장제는 남성 외에 다른 존재들은 변두리이자 하위 개체가 되도록 만드는 성 불평등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가부장제 구조의 가족 형태에 대해 강남순은 이렇게 설명한다:

> 그 가족의 중심에는 남성인 가장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다른 가족

[35] 이재경 et al., *여성학*, 29-30.
[36] 강남식 et al., "가부장제," *여성과 사회* 3 (April 1992): 346.
[37] 이재경 et al., 325.

> 구성원들은 그 가장의 절대적 권위에 종속되는 존재들일 뿐이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권력을 지니지 못한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개인으로서 그 개체적 권리나 존엄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위계적 권력구조 속에 매몰되어 버리고 만다.[38]

그런데 이와 같은 가부장제 구조는 교회 구조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가부장제 구조의 가족 형태를 교회가 강화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강남순은 예수의 겸손과 희생을 교회가 여성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한정 지었다고 비판했으며, 기독교의 남성중심적 상징이 남성의 우월성을 강화했다고 했다. 또한 기독교의 인간 이해가 여성혐오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39] 그리고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은 "가부장제(patriarchy)라는 단어는 사제의 위계(hierarchy)나 규칙을 의미한다"[40]고 말하면서 애초에 가부장제 자체가 종교적인 색체를 띠고 있는 구조임을 말했다. 따라서 가부장제는 가정과 교회에서 남성을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기도록 만드는 이데올로기이며, 남성중심주의를 형성시키도록 만드는 메커니즘(mechanism)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억압(Suppression)

사전적으로 억압은 자기 뜻대로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억누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과정이나 행동, 특히 충동이나 욕망을 억누름이라고 정의한다.[41] 그러나 이는 억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일부분만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억압에는 다양한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서 억압을 당하는 대상을 비롯해서 억압의 방식과 형태도 다양하게

---

38 강남순, "전통적 가족의 해체와 그 재구성," *기독교사상* vol. 45, no. 5 (May 2001): 88-89.

39 강남순, "종교.가족.페미니즘," *기독교사상* vol. 41, no. 10 (October 1997): 150.

40 Carol Gilligan, *Joining the Resistance 담대한 목소리*, trans. 김문주 (서울: 생각정원, 2018), 44.

41 국립어학원 표준국어대사전, "억압," *문화체육관광부*, accessed July 5, 202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word_no=460934&searchKeywordTo=3.

나타나기 때문이다. 두은영은 이 억압의 개념이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42]

또한 이 억압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영(Young)에 의하면, "전통적인 용법에서 억압은 지배 집단의 폭정(tyranny)을 의미한다."[43] 이재경은 이러한 집단적인 억압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사회적으로 구성된 집단에 대해 모든 사회적 제도의 이데올로기와 실천을 통해 조장되는 편견과 차별, 단순한 편견과 차별에 의한 억압과 구별되는 비판적 지점은, 그것이 집단적 현상이고 구조적으로 편견을 조장하고 차별적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권력과 권위가 사용된다는 데 있다. 모든 사람은 직간접적인 가해자이거나 수동적 수혜자로서, 또는 한 집단의 구성원이거나 다른 열등한 집단의 구성원의 위치에서 억압받는 사람에 대해 차별적 행동을 행함으로써 억압의 실천에 참여하게 되고 사회화된다.[44]

이처럼 집단에 의한 체계적인 제약은 억압이 구조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억압은 폐쇄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한편 영(Young)은 억압을 착취(exploitation),[45] 주변화(marginalization),[46] 무력함(powerlessness),[47]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48] 폭력(violence),[49] 총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50] 이와 같은 억압에 대한 판별 기준은

---

[42] 두은영 and 최수진, "간호조직에서의 억압에 대한 개념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21, no. 4 (April 2021): 501.

[43]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06.

[44] 이재경 et al., *여성학*, 329.

[45] Young, 122. "한집단의 노동이 특정집단을 위한 이득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46] Young, 131. "모든 권리에서 무시되거나 배제되는 것이다."

[47] Young, 136. "지위에 따라 권리, 기회, 차별을 경험하는 것이다."

[48] Young, 141. "지배집단만을 유일한 규범, 보편화로 여기지만, 피지배집단은 낙인 찍고 배제하는 것이다."

[49] Young, 146. "사회적 인식이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며, 특정 집단을 억압하는데 폭력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환경과 사회를 조장하는 것이다."

[50] Young, 105.

억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고, 억압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와 논쟁에 대해 적절한 기준이 되어준다. 그리고 억압을 당하는 대상이나 집단에 대해 하나의 억압 형태로 환원시키거나 획일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해주고, 억압을 당하는 집단 간에도 객관적인 판단과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판별 기준을 제공해줄 것이다.[51]

5. 영성(Spirituality)

메조리 톰슨(Marjorie J. Thompson)은 영성이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영성은 우리가 영적 잠재력을 깨닫는 방법이다. 여기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동의하는 것이 포함된다.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해주는 신앙, 가치 몰입, 생활 형태, 신앙 훈련 등을 선택하는 길을 제시해준다.[52]

그리고 영성을 이해하는데 불변하는 구성요소에 대해 마이클 다우니(Michael Downey)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 차원과 같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온전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다"[53]라고 말한다. 그래서 영성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지극히 추상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양식을 변화시켜 자신을 현실 속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객관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영성이란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

[51]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53-55.

[52] Marjorie J. Thompson, *Soul Feast: An Invitation to the Christian Spiritual Life 영성형성 훈련의 이론과 실천: 기독교 영성생활로의 초대*, trans. 최대형 (서울: 은성출판사, 2015), 34-35.

[53] Michael Downey, *Understanding Christian Spirituality 오늘의 기독교 영성 이해*, trans. 안성근 (서울: 은성, 2001), 30.

형성되는 것이다. 마치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이중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같다. 에드워드 캔다(Edward Canda)는 이러한 영성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영성이 의미하는 것은 의미부여, 타인, 지구, 환경 등과 도덕적으로 완성된 관계 등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다. 영성은 종교적 혹은 비종교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커다란 개념이다. 영성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유될 수 있으며 사실상 반드시 공유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관계, 타인과의 연결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54]

이처럼 영성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존재를 절대적인 존재를 통해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절대적인 존재와 더불어 단순히 개인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인간, 자연, 그 외 여러 존재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성은 인간의 정체성과도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성의 형성 과정과 비슷하게 정체성도 개인의 영역에서 주관적이나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그 존재 양식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성과 정체성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성을 생활화하고 훈련하는 것을 영성 생활 또는 영성 훈련이라고 한다. 이를 구분하여 설명하자면, 영성 생활은 성도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여 그 일에 협력하는 것이다. 영성훈련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훈련(성경 묵상, 기도, 금식, 예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삶의 영적 차원이 발전할 수 있는 도움을 받는다.[55]

---

[54] Edward R. Canda., "Spiritual Connections in Social Work: Boundary Violations and Transcendence," *Journal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Social Work* vol. 27, no. 1-2 (June 2008): 27.

[55] Thompson, *Soul Feast: An Invitation to the Christian Spiritual Life 영성형성 훈련의 이론과 실천: 기독교 영성생활로의 초대*, 37-38.

6. 페미니스트 영성(Feminist Spirituality)

페미니스트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스트 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페미니스트 신학은 페미니즘이라는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순에 따르면, "페미니스트 신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진정성 회복'이다. 여기서 '진정성'이란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인 상태, 즉 자신을 '자유로운 존재'로 체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56]고 말한다. 이는 전통적인 신학에서 남성성의 우위와 지배를 벗어나 그 동안 배제되어온 여성의 경험을 회복함으로써 기독교가 왜곡되지 않도록 만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기독교를 해방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페미니스트 신학은 남성의 영성 경험과는 별개로 여성의 영성 경험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기존에 남성에 의해 지배적이었던 영성의 영역을 벗어나 여성들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영성으로서 페미니스트 영성이 거론된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영성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강남순에 따르면, 첫째로 여성의 경험에 근원을 두고 있다. 즉 여성의 힘을 박탈당한 경험과 여성의 힘을 새롭게 재건하는 여성 해방적 경험을 모두 포함한다. 둘째로 이분법적으로 이해되어온 것들을 재통합하는 것이다. 상충되어지는 이분법적 구조가 아니라 상호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셋째로 여성화해온 것과의 연대 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넷째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접근방식을 거부한다. 위계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의 예식을 거부한다. 다섯째로 개인의 성장과 사회정의의

---

[56] 강남순, *21 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29.

정치학과 변혁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한다. 여성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차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57]

이처럼 페미니스트 영성은 '여성은 인간이다.'라는 이론을 토대로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기독교 영성을 극복하고,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들이 한 인간으로 회복하도록 만드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기 주도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은 대부분 타자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주도적이기 보다는 반사적이게 되고 본래의 나를 상실한 체 타자가 규정한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영성을 통한 회복은 곧 자기 주도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D. 청중

본 연구의 주된 청중은 연구자로 참여하는 나 자신이다. 나는 목회자이자 남편으로서 이번 연구 참여자들과 비슷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아내의 상황을 지금까지 지켜보며 방관자의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차 청중은 한국의 가정과 교회에서 억압과 소외를 경험하는 목회자 아내들이다. 마지막으로 3차 청중은 내가 이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들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는 한국 남성 목회자들이며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다.

E. 연구 범위와 제한성

본 연구는 한국이라는 국가 내에서 목회자 아내로 살아가는 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래서 외국의 한인 목회자 아내나 선교사 아내로 살아가는 여성에 대한 객관적인

[57]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237-38.

표본이 될 수 없는 제한성이 있다. 또한 30 대에서 60 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한국 목회자 아내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나, 국내 수백 개의 교단 목회자 아내를 대상으로 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F. 연구의 독창성과 공헌

현재 여러 논문과 학술자료에서 목회자 아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페미니스트 신학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목회자 아내에 대한 연구들이 목회 상담으로만 접근하면서 영성의 영역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목회자 아내의 특성을 고려하여 페미니스트 영성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새로운 영성 훈련 과정을 제안하는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관점의 접근을 통해 목회자 아내가 자신을 성찰하도록 도울 것이며 그렇게 형성되어진 영성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객체이자 약자가 아닌 주체적인 인간이 되도록 고취시키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목회자 아내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고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데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Chapter Ⅱ

질적 연구 방법 및 절차(Qualitative Method and Procedure)

A. 연구 방법

1. 왜 질적 연구인가?

본 연구는 한국 가정과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 아내들의 경험을 페미니스트 신학 관점과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관찰한 연구이다. 여기서 페미니스트 신학 관점은 가부장제 문화 가운데 한 여성의 진정한 나를 회복하도록 돕는 관점이며, 남성 중심 영성을 탈피하여 여성 본연의 영성을 발굴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목회자 아내들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심층 면담을 할 것이며, 질적 연구 방법 가운데서도 경험에 중점을 두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본 연구에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활용될 것이다.

현대에 와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하는 방법이 생겨났는데, 이를 실증 연구(empirical study)라고 한다. 이러한 실증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로 양적 연구 방법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며, 이를 왜곡 없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하며 연구자의 주관적인 개입을 억제한다. 반면에 두 번째 실증 연구 방법인 질적 연구 방법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에 대해 회의적이며 연구자가 연구상황에 참여하여 탐색하는 것을 허용한다.[58]

---

[58]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개정판 2nd* (서울: 박영스토리, 2018), 32-33.

이러한 질적 연구 방법은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적을 중심으로 본 연구가 왜 질적 연구 방법에 적절한지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김영천은 이렇게 설명한다:

> 질적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의미와 이해이다. 이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토속인, 이방인, 타인, 연구 참여자 등)이 자신의 사회 세계와 행위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행위 하는지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의미란 그들이 갖게 되는 형태의 경험과 감정, 인지, 지각, 태도, 상징 등을 포괄하는 넓은 맥락에서의 의미를 말한다.[59]

이는 곧 질적 연구 방법이 한국의 가정과 교회에서 목회자 아내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그들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경험들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 방법과 다르게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양적 연구 방법은 대단위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화의 작업을 중점에 두지만, 질적 연구 방법은 대규모의 사례보다는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한 사례에 중심을 두고 연구를 하는 방법이다.[60] 또한 김영순에 따르면 "질적연구는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특정 주제나 이슈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환기하거나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61]고 말한다. 이처럼 이번 연구의 방향성은 한국의 가정과 교회에서 목회자 아내가 경험하는 특정한 사례에 집중하면서 목회자 아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 방법이 적절한 연구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

[59]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2), 116.
[60] 김영천, 127.
[61] 김영순 et al., *질적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2018), 39.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은 발견되지 않은 사회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연구 방법으로 기존에는 설명하지 못했던 것을 이론적으로 발전시켜 해석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다.[62] 본 연구에서도 한국 가정과 교회에서 목회자 아내들이 경험하는 현상에 대해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내면에 가리워진 설명할 수 없었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에 질적 연구 방법이 양적 연구 방법보다 더 부합하다.

2. 현상학적 연구

목회자 아내의 영성 훈련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질적 연구 방법보다는 양적 연구 방법과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추수경의 *목회자 사모의 영성 훈련에 관한 연구*[63]와 김희영의 *마리아 해리스(Maria Harris)의 여성 영성 교육에 관한 연구*[64]의 경우 목회자 아내나 여성을 위한 영성 훈련에 관한 연구자료이지만, 정작 당사자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다른 일반적인 영성 훈련과 다를 바 없는 신앙심 고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 목회자 아내에 대한 질적 연구자료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대부분 페미니즘 관점과 영성에 관련된 질적 연구는 미비하다. 황미경의 *부교역자 사모의 정체성을 위한 상담*

---

[62]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 Bricoleur*, 136.

[63] 추수경, "목회자 사모의 영성훈련에 관한 연구" (MDiv thesis,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2008)

[64] 김희영, "마리아 해리스(Maria Harris)의 여성영성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57 (June 2018): 1-32.

연구[65]나 김애란의 *교회 부교역자 아내의 역할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66]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시도하여 목회자 아내들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으나 사회학이나 상담심리학을 통해 접근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질적 연구를 시도한 박운송(Park, Woon Song)의 *Understanding Korean American Pastors' Wives: A Feminist and Cognitive Behavioral Reconstruction of Self-Identity*[67]는 목회자 아내의 경험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목회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목회자 아내의 영성에 대한 접근은 다루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식을 활용해 목회자 아내의 경험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영성훈련과 연계하여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오늘날 목회자와 교회 구성원들에게 목회자 아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며, 또한 목회자 아내들이 스스로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해줄 것이다.

김영천에 따르면, "현상학적 질적 연구란 인간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 체험을 바로 그 체험이게 만드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분명하게 기술하고, 이를 통해 체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68] 그래서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경험에 비추어 그들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경험 가운데 본질적인 요소나 구조를 도출해내는 질적연구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 대해 신충식은

[65] 황미경, "부교역자 사모의 정체성을 위한 상담 연구," 113-32.

[66] 김애란, "교회 부교역자 아내의 역할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67] Woon Song Park, "Understanding Korean American Pastors' Wives: A Feminist and Cognitive Behavioral Reconstruction of Self-Identity" (DMin projec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2018).

[68]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90.

이렇게 말한다. “객관과 데이터에 따라 어떤 현상을 외부로부터 설명하려는 계량적 접근 방법에 반하여 내부로부터 이해하려는 기술적(descriptive) 접근 방식”[69]이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현상학이라는 철학적 이념을 기반하고 있는데, 토마스 아키나리(Tomasu Akinari)의 설명에 의하면, “현상학은 우리 눈앞에 나타난 현상을 중심에 두는 철학으로 현상의 구조를 통해 실재하거나 상상 속에 있는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한다.”[70] 즉 현상학은 직접적으로 눈 앞에 있는 현상을 주시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기웅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 대해 “이러한 특성을 가진 철학의 사조인 현상학을 응용하여 연구의 선입견과 기존 경험 등에서 최대한 벗어나서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노력이다”[71]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통해 한국의 가정과 교회에서 목회자 아내들이 어떠한 사건과 경험을 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러한 체험 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해보려 했다. 그리고 목회자 아내들과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체계화하고 범주화 하여 분석하였다.

3. 심층면담

나는 질적 연구 방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심층 면담을 통해 목회자 아내들의 경험을 파악했다. 김영천은 심층 면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69] 신충식, “질적 연구 방법과 현상학,” *사회과학* 42, no. 1 (June 2009): 86, quoted in 이상수, “로스쿨 학생들이 바라보는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와 구조: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에 의한 돌출,” *법사학연구* 43 (April 2011): 105.

[70] Tomasu Akinari, *賢者の思想本　西洋の思想家編 하룻밤에 읽는 서양철학*, trans. 오근영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19), 204.

[71]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개정판 2nd*, 143.

> 면담은 질적연구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으로, 개인 혹은 다수의 연구 참여자 간에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직접적으로 의사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질문지를 이용한 방법 등에서 오는 반응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72]

그런데 심층 면담의 장점인 대화 형식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화나 단순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유기웅에 따르면, "일종의 형식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화, 또는 유목적인 의사소통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특히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주제와 관련한 지식의 생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의도적인 대화인 것이다."[73] 그러므로 무작위로 연구 참여자를 정해서는 안 되며, 연구 주제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경험이 풍부한 연구 참여자를 통해 연구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심층면담을 위한 면담기법으로 '반구조화 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74]을 진행했다. 면담 가이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2]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 Bricoleur*, 323.

[73]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개정판 2nd*, 258.

[74] 유기웅, 262-63. "반구조화 된 인터뷰는 말 그대로 구조화된 인터뷰와 비구조화 된 인터뷰의 중간형태를 말한다. 반구조화 된 인터뷰에서는 연구자가 인터뷰 가이드, 혹은 인터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인터뷰 질문지를 사전에 준비하기는 하지만, 구조화된 인터뷰에서처럼 엄격하게 질문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서 캐묻기와 같은 추가적인 질문의 가변성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연구자가 우선적으로 개방형 질문을 던짐으로써 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정리, 구성하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연구자가 연구주제와 목적과 관련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지시어 등을 포함함으로써, 연구자가 인터뷰 진행중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빼먹지 않도록 한다."

〈표1〉 심층 면담 질문

면담 가이드
1. 결혼 전, 목회자 아내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했나요? 1-1. 먼저 평신도의 위치였을 때 제 3 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1-2. 그리고 남편 목회자와 교제를 하며 결혼이 확정되었을 때 목회자 아내가 되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2. 목회자의 아내가 된 이후로 어떠한 부분(직업, 생활, 생각, 가치관 등등)들이 달라졌나요? 2-1. 특히 자신의 정체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2-2. 또한 자신의 영성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3. 남편 목회자와 자녀가 나를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4. 남편 목회자와의 관계(교회, 가정) 속에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이었나요? 그리고 어떠한 감정을 느꼈나요? 5. 남편 목회자와의 관계(교회, 가정) 속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소외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무시와 소외를 경험했나요? 그리고 당시 어떠한 감정을 느꼈나요? 6. 목회자 가정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영성 생활을 하는데 주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7. 목회자 가정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영성 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8. 남편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목회자 아내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9. 교회에서 영성 생활을 하며 느끼는 기쁨은 무엇인가요? 10. 교회에서 영성 생활을 하며 느끼는 불편함은 무엇인가요?

11. 교회에서 목회자 아내라는 위치 때문에 경험한 억압이 있나요? 11-1.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억압의 경험을 했나요? 11-2. 또한 억압을 경험했을 때 어떠한 감정을 느꼈나요? 12. 목회자 아내로서,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3. 목회자 아내로서, 앞으로 한국 교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14. 목회자 아내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영성 훈련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위의 면담 가이드를 바탕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 아내들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배제하였다. 특히 현상학적 연구에 있어서 목회자 아내들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판단중지(epoché)[75]이다.

〈표2〉 심층 면담 시 판단중지 사항

판단 중지
1. 목회자 아내는 목회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할 것이다.
2. 목회자 아내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3. 목회자 아내는 가정에서 억압과 배제를 당할 것이다.
4. 목회자 가정과 교회는 가부장적인 구조일 것이다.
5. 목회자 아내는 목회자 가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6. 목회자 아내는 교회에서 차별과 배제를 당할 것이다.

[75]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Ⅱ: Methods*, 95. "에포케(epoché)는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이 가정으로부터의 해방, 판단정지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그리스어로, 멀리 떨어뜨려 놓음 혹은 억누름을 뜻하는 말이다. 이는 우리말로 흔히 판단 중지라고 일컬어지는데 판단을 중지한다는 것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그것에 긍정 혹은 부정과 같은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7. 목회자 아내는 교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4. 연구의 신뢰성과 윤리성

나는 목회자 아내들과 심층 면담을 진행할 때 이들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고려해야 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남편 목회자와 교회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남성이자 현직 목회자라서 연구 참여자가 부담을 느껴서 대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심층 면담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그 동안 나의 아내를 비롯해서 주위 목회자 아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공유하며, 목회자 아내들의 고충을 공감하고 있음을 알림으로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모든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표기했다. 녹음 내용은 보안 장치를 하여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할 것을 설명하고 동의할 경우에만 녹음과 필사를 하였다.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익명성을 비롯한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와 면담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을 약속하고, 원하는 경우 면담 철회와 녹음 중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했다. 연구 기간(~2022 년 5 월 1 일) 이후 3~5 년간 학술지 게재와 학회 발표를 위해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후에 모든 자료를 폐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기간 후 바로 폐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알렸다. 나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연구를 하되 연구 참여자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최종 승인(승인번호: 2021-03)을 받아 엄격하게 윤리적인 보호를 보장하며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B. 연구 참여자

나는 본 연구에서 특정 연령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결혼이 유효한 20 대에서부터 일반적인 목회자의 은퇴 정년인 70 세 이하 목회자 아내 10 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심층 면담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20 대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20 대 목회자 아내를 제외하고 다른 연령대에서 인원을 충원하여 총 9 명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20 대에 사람이 없지만 되도록 다양한 연령대의 목회자 아내를 선정하려고 한 이유는 특정 연령 목회자 아내들로 치우쳐 선정할 경우, 그들의 경험으로 다른 연령 목회자 아내 경험까지 일반화할 우려를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각 연령대의 인원수가 소수이다 보니, 각 연령대를 포괄적으로 대변할 수 없다는 점 또한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유용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모든 연령층에 요구되는 기준은 결혼 생활을 한지 최소 1 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수는 비록 적지만 연구자 소속 교단을 넘어 6 개 교단 소속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본 연구 대상이 한국교회라는 측면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목적 표집인 지인 목회자 아내들과 눈덩이 표집인 제 3 의 목회자 아내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목회자 아내들의 기본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3〉 연구 참여자 기본 인적 사항

연구 참여자	성별	교단	나이	남편나이	결혼연차	자녀	지역
연구 참여자A	여성	M	60대	60대	28	3	G

연구 참여자B	여성	P	60대	60대	34	2	C
연구 참여자C	여성	B	50대	50대	26	2	G
연구 참여자D	여성	B	50대	50대	30	3	D
연구 참여자E	여성	M	40대	40대	16	2	D
연구 참여자F	여성	A	40대	40대	2	1	I
연구 참여자G	여성	P	40대	40대	16	4	G
연구 참여자H	여성	M	30대	30대	7	0	J
연구 참여자I	여성	P	30대	30대	4	1	D

나는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미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심층 면담 전에 재차 연락을 하여 연구자 신상과 연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뢰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심층 면담 전에 연구 참여자들과 사전대화를 하며 '공감대(rapport)'[76]를 형성하려 한 이유는 익명성을 중시하는 목회자 아내들의 특성을 존중하고, 더 안전한 면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심층 면담의 소요 시간은 1 시간 내외로 진행하였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구조화 된 질문내용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생각을 미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구조화 된 질문 내용 가운데 궁금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연락처와 정보를 공유하였고,

[76]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개정판 2nd*, 267. "공감대(Rapport) 형성은 인터뷰의 원활한 진행에 근간이 된다. 무엇보다도 인터뷰를 실시하는 연구자는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상황적 조건이 인터뷰 참여자에게 우호적으로 지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가 면담을 더 필요로 할 경우에는 횟수 또는 시간을 연장하였다. 녹음내용 가운데 더 필요한 내용은 참여자에게 재질문과 확인 작업을 하여 연구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C. 연구 절차

심층 면담을 진행하려는 상황 가운데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대면 심층 면담의 제한적 상황이 발생하였고, 목회자 아내들이 대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문자를 통해 연구 참여 동의서(PDF)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Zoom' 어플을 통한 비대면 화상 심층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녹화가 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Zoom' 어플에 있는 녹화 기능을 활용하였다. 또한 녹화로 인해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Zoom' 어플을 통한 녹화 이후에는 바로 녹음 파일만 남기고 녹화 파일은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장했다.

나는 반구조화 된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판단 중지하고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콜라이지(P. F. Colaizzi)의 분석 절차'를 활용했다. 콜라이지 현상학적 분석 방법은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각각의 자료들 가운데 의미 있는 문장이나 어구를 재검토한다. 그리고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해내어 이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주제와 진술들을 범주화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경험의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구조를 기술하는 절차를 따른다.[77] 이러한 콜라이지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면담 시 녹음했던 것들을 옮겨 적고 반복적으로 읽는다.
> 둘째, 면담 중 연구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들을 끌어낸다.

---

[77] 신경림, at al.,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125.

셋째, 명확하게 밝힌 의미 있는 주제들을 주제, 주제군, 범주로 조직한다.
넷째, 조사된 현장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기술한다.
다섯째, 분석 과정을 통해 나온 본질적인 구조가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유효성을 확인한다.[78]

이와 같은 콜라이지의 분석 절차를 통해 목회자 아내들의 경험과 감정을 이해하고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목회자 아내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에 따른 건설적인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했다.

또한 나는 본 연구에서 목회자 아내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겪는 경험을 통해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페미니스트 신학 이론을 통해 분석했다. 이를 위해 9 명의 목회자 아내들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샤론 메리엄(Sharan B. Merriam)이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 첫째, 삼각 검증법(triangulation)이다.[79] 둘째, 연구 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이다.[80] 셋째, 장시간 관찰법(long-term observation)이다.[81] 넷째, 동료 검토법(peer examination)이다.[82] 다섯째, 연구

---

[78] 김영천, *질적 연구방법론 Ⅱ: Methods,* 107.

[79]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개정판 2nd*, 394-95. "다수의 연구 조사자, 다수의 자료원, 혹은 연구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다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0] 유기웅, 396. "연구결과에 대해서 혹은 연구를 수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견해를 물어 연구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81]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개정판 2nd*, 397.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장소 혹은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관찰을 수행함으로써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82] 유기웅. "수행하고 있는 연구주제, 질적 연구 방법론, 그리고 관련분야에 식견이 있고 연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동료 3~5 명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연구 분석 자료와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참여자 관여법이다.[83] 여섯째, 연구자 편견(researcher's bias) 공개법이다.[84]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audit)이다.[85]

나는 샤론 메리엄(Sharan B. Merriam)이 제시한 일곱 가지 전략 중에서 네 가지 전략을 활용하였는데, 첫째는 연구 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이다. 연구 참여자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참여자들 견해를 확인함으로써 연구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높였다. 다음은 동료 검토법(peer examination)이다. 평소에 목회자 아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나 목회자 아내 2 명에게 분석한 자료와 결과물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여 더 명확한 정보와 의견을 종합해보았다. 그리고 연구자 편견(researcher's bias) 공개법을 통해서 연구자의 성별, 인종, 나이, 과거의 경험, 직업, 직위를 알리고 이 연구를 착수하게 된 과정을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 관여법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 중 페미니스트 신학에 대한 지식을 견지하고 있고 목회자 아내에 대해 관심이 많은 연구 참여자 H 를 선정하여 관여하도록 하였다.

D. 연구 결과 및 해석

나는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 면담 자료를 콜라이지 분석 과정에 따라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반구조화 된 면담 가운데 연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표현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진술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45 개의 주제와 15 개의 주제군, 그리고

---

[83] 유기웅, 397-78. "연구 참여자를 연구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 설계, 자료수집 방법 선정, 연구 결과 분석 및 해석 등 연구 전 과정에 관여케 할 수도 있다."

[84] 유기웅, 398. "연구자의 편견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방법이다."

[85] 유기웅. "연구자에 의해서 고용된 감사자 혹은 전문가가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조사하여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5 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범주인 (A)는 '가부장제에 내재화된 정체성'으로 3 개의 주제군(의존적인 태도, 보조 역할이라는 인식, 전통적인 사모상을 요구하는 환경)과 11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두 번째 범주인 (B)는 '대상화된 정체성'으로 2 개의 주제군(착취의 대상, 주변화)과 8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세 번째 범주인 (C)는 '억압당하는 정체성'으로 4 개의 주제군(강요된 침묵, 개인적인 시간 박탈, 억눌린 감정, 판단 받는 영성 생활)과 13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네 번째 범주인 (D)는 '혼란을 겪는 정체성'으로 2 개의 주제군(부교역자라는 비자발적 역할 갈등, 어머니라는 자발적 역할 갈등)과 4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범주인 (E)는 '영성 훈련을 통한 돌파구 모색'으로 2 개의 주제군(개인적 영성 생활, 공동체적 영성 생활)과 8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아래 표는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다.

〈표4〉 자료 분석 결과: 범주, 주제군, 주제

범 주	주제군	주 제
A. 가부장제에 내재화된 정체성	1. 의존적인 태도	1) 남편한테 어떤 영성이나 교육에 의존적인 입장이었어요...저에게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사모님들은 목사님의 그림자로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2)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이니 남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3) 남편이 사역지를 옮길 때 제가 의견을 내서 좌지우지하지 않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제 적정선을 정해주는 편이에요. 일단 제가 묻는 편이라.
	2. 보조 역할이라는 인식	1) 사모는 남편 목회자의 목회를 돕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이 목회자 아내의 역할 같아요.
		2) 목회자 아내는 목회를 도와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3) 저는 보조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했고요. 4)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사모는 남편과 성도들이 봉사하는 곳에 꼭 함께 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3. 전통적인 사모상을 요구하는 환경	1) 사모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볼 때 사모는 참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튀면 안 되는 억울한 입장이겠다 생각했어요...한국 문화나 교회의 문화가 사모를 억누르는 것 같아요. 2) 대부분의 교회가 목회자 아내에게 목회자의 역할을 강요하는 게 문제예요...성도들이 사모님은 돌보는 역할을 하길 원하세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3) 사모님들이 직장을 나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어요. 저도 조금은 부정적이었죠. 4) 남편은 목회자로서 저에게 전통적인 사모의 삶,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심지어 탈색하고 고향 교회에 갔을 때 어떤 권사님이 목회자 아내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B. 대상화된 정체성	1. 착취의 대상	1)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할 때가 있거나 한가지라도 실수하면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2)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영성 생활이 거의 망가졌다고 보면 돼요...예배 시간에는 다른 아이들까지 돌봐야 되죠. 3) 남편이 재정을 모두 담당하고 있고, 그것에 제가 관여를 거의 못하는데, 빚 갚는 문제가 터지면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번 돈이 있냐고 했어요. 4) 어떤 성도님이 사모님은 그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때 마치 제가 어떤 도구가 된 느낌이 들었죠.
	2. 주변화	1) 제가 몸이 아프면 돌보아 주지 않아요. 신경을 못 써주는 게 아니라 방치를 해요. 2)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의했는데, 나에게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소외감을 느꼈어요. 3) 저를 어린 아이 보호하듯 하고, 제 의견을 잘 듣지만 실행이 된 적은 없어요. 4) 나도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지만 이를 제재했을 때가 있어요.
C. **억압당하는 정체성**	1. 강요된 침묵	1) 어떤 권사님이 성도들이 사모님을 신격화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맡았던 사역을 제재하여 못하게 했어요. 2) 교회 안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내길 바랍니다. 3) 사모가 되고 나서부터는 더 말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평신도였을 때는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정도예요.
	2. 억눌린 감정	1) 성질대로 하면 싸울 수 있지만 참는 경우가 있죠...자발적인 복종을 했다고 생각해요. 2) 목회자 아내로서 살아가기에 그냥 참지만, 앙금이 남아서 나에게 과제로 남을 때가 있어요.
	3. 개인적인 시간의 박탈	1)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 나만의 어떤 시간을 길게 가지려 해도 새벽 예배라는 것이 걸려요. 2) 노출된 자리에 있다고 느끼다 보니 제 생활 공간이나 시간이 부자연스러웠어요. 3) 다른 직업이나 대외 활동에 있어서 제약이 있어요. 4)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주일 예배를 두 번이나 빠지게 되자 남편이 안된다고 억압했어요.
	4. 판단 받는 영성 생활	1) 사모가 교회에 계속 나가다가 안 보이면 교인들이 궁금해하죠. 이것이 약간의 장애가 돼요. 2) 본인이 정한 시간과 정한 어떤 방법들 속에서 영성 생활을 하고 싶은데,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본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 가운데 시선을 의식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3) 보여지거나 판단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4) 개인의 신앙생활일 수 있는 부분인데, 목회자의 아내라서 모든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억압이 있어요.
D. 혼란을 겪는 정체성	1. 부교역자라는 비자발적 역할 갈등	1) 제 역할은 약간 부교역자의 역할이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2) 부교역자 역할도 하면서 여성으로서 교회 일까지 하는 존재라고 생각되요.
	2. 어머니라는 자발적 역할 갈등	1)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다 보니 영성 생활을 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2)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무능한 부모일 때 자존감이 낮아지고,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E. 영성 훈련을 통한 돌파구 모색	1. 개인적 영성 훈련	1) 침묵 기도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해요. 2) 혼자 침묵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런 시간이 점점 늘어가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3) 마음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께 털어 놓는 기도가 필요해요. 4) 사모들이 영성 훈련을 해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자신만의 말씀 읽기, 성경 공부가 되겠죠. 5) 말씀 묵상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눠요. 6) 페미니즘 관련 책을 읽고 성경을 여성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요.
	2. 공동체적 영성 훈련	1) 남성화 된 예배가 아니라 여성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생활에 큰 영성 훈련의 한 부분이에요. 2)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 있어서 사모님의 자존감과 사명을 세워줄 수 있는 교육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심층 면담을 통하여 도출되어진 범주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서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A. 가부장제에 내재화된 정체성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에서 첫 번째 범주(표 4:A)는 '가부장제에 내재화된 정체성'이다. 목회자 아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 가지의 형태를 통해서 가부장제의 내재화를 경험했는데, 첫 번째는 의존적인 태도였고, 두 번째는 보조역할이라는 인식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통적인 사모상을 요구하는 환경으로 인해 가부장제의 내재화에 노출되어져 있었다.

1. 의존적인 태도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남편 목회자와의 관계 가운데 의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물론 부부간의 관계 자체가 서로를 지지하고 의존하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과 남편 목회자와 관계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의존적인 관계보다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연구 참여자 C 경우에는 자신의 영성 영역까지 남편 목회자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남편 목회자라는 존재를 통해서 신과 인간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 목회자의 그림자가 되어지는 내재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 E 는 남편 목회자가 설교자라는 위치 가운데 가지게 되는 권력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했다. 물론 신앙인의 측면에서 목회자의 설교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은 중요한 신앙 형태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까지 연장선상에 놓이게 되면서 순종이라는 신앙 형태가 남편 목회자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 G 사례는 남편 목회자가 사역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 전혀 자신의 의견을 내비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목회자라는 위치가 가정에까지 영향을 줌으로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스스로가 내재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역지를 옮기는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여러 결정 사항들이 남편 목회자에게만 집중이 되어지고 목회자 아내는 자연스럽게 의존적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 응답이다.

〈연구 참여자 C〉

남편한테 영성이나 그러한 교육에 의존적이었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에 대한 이해나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 자체가 저에게 없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의존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황 속에서 남편한테 의존하고 남편이 교육하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 나름대로 천천히 성장해온 것 같아요...별 생각은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저한테 아마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나 싶은 것이 사모님들은 제가 한참 청년 때 보면 늘 비슷한 모습이셨죠.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늘 목사님의 그림자로 살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E〉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며 대언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확실히 믿어요. 여기 네 남편이 네 남편 목사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남편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해요.

〈연구 참여자 G〉

제 중심에 뭐가 있었냐 하면 사역지에 가는 것은 목사님의 사역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만약에 사역지를 옮긴다고 할 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제가 의견을 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목사님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저는 1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그 적정선을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정해 주는 편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묻고 나서 "아니 그건 안 해도 돼" 이러면 안 하려고 좀 해서 저도 결정을 잘 못 내려요. 일단 묻는 편이라...

2. 보조역할이라는 인식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 거의 모든 연령대가 자신을 남편 목회자에 대한 보조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목회자 아내라는 위치가 남편 목회자를 돕는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A 경우 남편 목회자는 담임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회자 아내는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교회 안에 질서로 자리 잡고 있는 위계적인 관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결국 목회자 아내는 남편 목회자를 중심으로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존재로 일정한 테두리 안에 자신의 존재 의미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 B 에게도 나타난 현상인데, 연구 참여자 B 경우에는 이러한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 A 와 B 의 면담 자료는 60 대라는 높은 연령 가운데 그 동안 한국교회에 자리 잡은 전통적인 사모상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구 참여자 G 와 I 경우이다. 이들은 40 대와 30 대 목회자 아내로서 60 대와는 다르게 조금 더 개방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에 다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반대로 동일한 서술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 G 경우에는 자신을 남편 목회자의 보조 역할이라는 단어를 가감 없이 사용하면서 목회자 아내가 보조 역할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 I 역시 남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존재로만 스스로를 규정함으로써 성도들의 요청과 결을 같이 하고 있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 응답이다.

〈연구 참여자 A〉

교회의 질서는 남편 목회자가 담임자이기 때문에 남편 목회자의 목회를 돕고 또 여성 사역자로서 남편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인 면 또는 그 외의 교회 여러 가지 면들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돕고 영혼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목회자 아내의 역할이지 않을까요?

〈연구 참여자 B〉

목사 아내가 돼서 목회를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저의 주장이에요.

〈연구 참여자 G〉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보조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도맡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요.

〈연구 참여자 I〉

남편이 있는 곳이나 성도들이 같이 봉사하는 자리에서는 꼭 함께 있어야 되는 것,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기도하는 존재,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요구하는 게 좀 더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 있어서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3. 전통적인 '사모상'[86]을 요구하는 환경

앞서 목회자 아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 목회자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이것이 삶의 일부분이 되어졌다. 그 가운데 자신을 남편 목회자를 위한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함으로써 한 여성이자 한 인간으로서 역할을 배제했다. 그런데 이는 목회자 아내들이 자기 스스로가 가부장제를 내재화하게 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외부의 환경적인 요소가 분명하게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86]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교회 내에 직간접적으로 형성된 전통적인 사모상은 목회자 아내들이 직업을 가지지 않고 남편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목회 전면에 나서서 사역해서는 안 되고 존재감 없이 남편 목회자와 성도들의 보조 역할만을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사모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D 경우 청년 시절에 출석했던 교회의 목회자 아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부터 전통적인 사모상을 강요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신만은 전통적인 사모상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전통적인 사모상의 영향에서 자신이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시인했다. 이미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완전히 탈피하는 데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었던 것이다. 연구 참여자 F 경우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목회자 아내들이 전통적인 사모상을 아무런 저항 없이 수용하고 내재화하고 있음을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역시 이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G 는 자신이 속한 교단이 한국교회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으로서 이미 교단 안에는 전통적인 사모상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말했다. 그래서 목회자 아내들은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 오직 남편 목회자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목회자 아내들은 직업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연구 참여자 G 는 부득의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갈등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 H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남편 목회자가 전통적인 사모상을 요구하는 사례로서 이는 교회만 아니라 가정도 가부장제를 내재화시키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H 는 남편 목회자만 아니라 고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어떤 성도로부터 자신의 외적인 모습이 전통적인 사모상과는 다르다는 것에 비판과 강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전통적인 사모상을 요구하는 환경이 목회자 아내의 내적인 것만 아닌 외적인 것까지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목회자 아내는 내적이든, 외적이든, 지속적으로 전통적인 사모상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은 이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 응답이다.

〈연구 참여자 D〉

사모는 뭐든지 참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튀면 안 되고 약간 억울한 입장이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한국 문화와 교회가 사모라는 입장을 억누르고 참고 기다리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F〉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회들은 배우자한테까지 목회자의 역할을 강요하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죠...돌봄을 하는 사람의 역할을 많이 요구하시고, 또 사모님 본인들도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역할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 잖아요. 선천적으로 그 태생이 그런 게 없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바쁘시거나 이런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이제 옛 세대들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조금 말이 나오죠.

〈연구 참여자 G〉

조금 일찍 그만두긴 했지만. 일을 하다가 그만뒀었고. 이제 목사가 되면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희 교단에서는 좀 많으셨거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신 목사님, 사모님들도 계세요.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직장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연구 참여자 H〉

제가 느끼기로는 남편은 목회자로서 저에게 전통적인 사모의 삶을, 사모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제가 고향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머리를 노랗게 탈색하고 갔단 말이예요. 전체 다 탈색하고 갔단 말이예요 그때 이제 20대 때 못 해봤다고 머리를 전체 다 탈색을 하고 고향 교회를 갔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나이 때 해도 된다. 근데 너는 안 된다. 너는 목회자 아내라서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목회자 아내들은 남편 목회자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취하게 되면서, 자신은 남편 목회자의 목회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보조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환경적인 요소가 가정과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통적인 사모상이다. 이를 가정과 교회의 구성원들이 강요하고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더욱 목회자 아내들은 가부장제의 내재화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속화하고 있었다.

B. 대상화된 정체성

다음 두 번째 범주(표 4:B)는 '대상화된 정체성'이다. 여기서 대상화 되었다는 의미는 도구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한 여성이자,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도구적인 인간이 되어서 남편 목회자와 성도들로부터 첫째 착취 대상이 되었고, 두 번째 주변화 대상이 되었음을 말한다.

1. 착취의 대상

착취라는 개념은 한 집단의 노동을 다른 집단이 이득을 취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를 젠더 착취의 개념에서 생각해보면, 여성으로부터 물질적인 노동이나, 자녀 양육이나, 성적 에너지가 남성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성이란 존재가 남성에게 있어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린다. 이는 대상화된 정체성을 가지도록 만드는 위험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D 경우에는 남편 목회자의 목회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남편 목회자는 목회라는 미명 하에 목회를 돕는 역할을 해왔던 연구 참여자 D 의 노동을 당연 시 했고, 이는 교회라는 구조 속에서 상하관계를 형성하여 마치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질타하는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 D 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목회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사례이다.

더 심각한 것은 연구 참여자 G 의 사례이다. 연구 참여자 G 는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발생한 돈의 문제가 그 발단이 되었다. 특히 남편 목회자가 가정에서 재정적인 부분들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었는데, 목회자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남편 목회자는 이를 당연 시 여겼다. 심지어 아내가 벌어온 수입에 대해 "당신이 직접적으로 번 돈이 아니잖아"라는 말을 하면서 아내의 노동을 부정하였다. 이는 목회자 아내를 착취 대상으로 여긴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외에도 성도들로부터 경험하는 착취를 연구 참여자들이 말하였는데, 먼저 연구 참여자 F 경우에는 가정에서 남편 목회자의 목회를 위해 전적으로 양육에 매달려야 되는 젠더 착취 형태와 원활한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의 아이들까지 돌봐야 되는 노동력 회신을 경험했다. 결국 남편 목회자와 성도들의 영성 생활을 위해 목회자 아내는 자신의 영성 생활에 지대한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성 생활의 착취는 연구 참여자 I 에게도 나타났는데, 연구 참여자 I 는 성도들로부터 남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에만 전념하도록 강요받았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라는 말처럼 기도는 엄연히 말해서 노동이다. 이러한 기도가 남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도록 성도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부축이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I 는 자신이 대상화된 존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사실상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체성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별 다른 방법이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는 자신의 본래 정체성처럼 굳어지게 될 위험성이 있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 응답이다.

〈연구 참여자 D〉

한 가지 뭔가 실수를 했었어요. 저도 이제 10가지 중에 깜빡 잊어버리거나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 남편이 “당신 그거 놓쳤으면 어떻게 해”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연구 참여자 F〉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하루에 성경 한 줄 읽을 시간이 없는 날이 더 많고요. 영성 생활이 거의 망가졌다고 보시면 돼요...그리고 저희 아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성도님의 아이가 그럴 경우 그분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그 아이를 대신 데리고 나와서 돌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구 참여자 G〉

저희가 ○○ 올라오기 전에 남편하고 ○○에 올라오는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좀 많았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사실은 부끄럽지만, 제가 처음으로 “이때까지 도대체 이 가정에서 뭘 했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남편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는데, 재정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었어요. 저희는 재정을 다 남편이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거의 못하고 있는데, 빚 갚는 문제가 터지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불쑥 남편이 한 얘기가 “당신이 직접적으로 번 돈은 아니잖아”라고 말했었어요.

〈연구 참여자 I〉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사모님은 그냥 목사님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면 된다고, 다른 건 다 기도 안 해도 되고,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고 교회도 다른 것도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만 위해서 말하는데, 약간 그때만큼은 저를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았지만, 한편으로 저를 어떤 도구적인 느낌으로 얘기한다는 느낌이 들었죠.

2. 주변화

인간이 대상화가 되면 생명체가 아닌 도구가 되어서 주변화의 대상이 되기가 쉽다. 이러한 무시와 배제를 경험한 목회자 아내들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동반하게 되는데, 특히 자존감이 하락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단지 목회자 아내들은 한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할 따름이지만, 목회자 아내라는 특수한 역할이 직간접적으로 남편 목회자들의 인식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목회자 아내이기 때문에 한 여성이자, 한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위로와 격려가 무시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 가운데 양육되어져 온 무뚝뚝한 아버지상을 남편 목회자들이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목회자 아내까지 영향을 미쳐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도구적인 존재로 여기고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A 경우에는 자신이 몸이 아파서 힘겨울 때 남편 목회자가 이를 무시한다고 한다. 어떠한 위로와 격려도 없으며, 실질적인 치료 조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사실 연구 참여자 A 는 남편 목회자에 대해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답변한 부분으로서 남편 목회자로부터 인간이 아닌 도구로 여겨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E 역시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남편 목회자로부터 한 여성이자, 한 인간으로 축하와 인정을 받고자 했으나 이러한 감정을 제재 받고 무시당하여 대상화를 경험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B 는 남편 목회자와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상의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남편 목회자로부터 배제 당했음을 말했다. 이는 무시와 배제를 경험한 것이었고, 연구 참여자 C 역시 교회의 사역적인 부분에서 남편 목회자와 여러 상의를 하기는 하지만 어린아이 취급을 받고 결정적으로 실행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 응답이다.

〈연구 참여자 A〉

제가 몸이 아팠을 때 보살펴주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신경을 많이 못 써주는 게 아니라 아예 방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입덧을 하고 3일 동안 밥을 못 먹는데도 내버려둬요. 밥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제가 막 급체를 해서 아파요. 그래서 방에 누워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도 병원에도 안 데려가고 내버려둬요. 근데 그게 지금 결혼한 지 25년, 30년이 되가도 안 변해요. 아무리 제가 그걸 고쳐 달라고 하고, 아프면 일단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고, 죽을 먹여 달라고 해도, 정말 착한 사람인데, 그것만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때에 굉장히 소외감과 섭섭함과 이런 것을 유일하게 느끼죠.

〈연구 참여자 B〉

저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상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얘기한 줄 알았는데, 안 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의했는데 어떻게 그것만 얘기를 안 했는지? 그것을 말한다고 내가 반대하지는 않았을 텐데, 난 좀 그 부분에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연구 참여자 C〉

남편이 의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남편은 저를 좀 어린아이 보호하듯 한다고 할까요? 좀 그런 게 있으셔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 사역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이렇게 제안을 하면 남편이 잘 들어요. 근데 그것이 실행이 된 적은 없어요.

〈연구 참여자 E〉

나도 이제 무언가를 했을 때 인정을 받고 싶었고 칭찬을 받고 싶었지요. 그런데 재제시키는 거예요. 그게 좀 저에게 있어서 자존심이 상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 성도들로부터 착취의 대상이 되거나 무시와 배제를 당한 것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남편 목회자로부터 착취의 대상이 되거나 주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편 목회자들의 말과 행동은 목회자 아내들에게 주체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데 크나큰 장애물이 되어져서 소극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들고 자존감을 상실시켰다. 이는 가정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까지 남편 목회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 가정이라는 틀 속에서 더욱 목회자 아내들의 자아가 상실되도록 부축였다.

C. 억압당하는 정체성

다음은 세 번째 범주(표 4:C)로서 '억압당하는 정체성'이다. 대부분 목회자 아내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부정 당하는 환경과 조건 속에 놓여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억압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자아가 소실되어지는 억압을 당하는 것이다. 나란 존재가 부정 당하게 되는 경험 가운데 목회자 아내들은 자기 스스로를 다양한 부분에서 억압하게 된다. 첫 번째는 목소리가 억압당하게 되는데, 이를 강요된 침묵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억압당하게 되는데, 이를 억눌린 감정이라고 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시간의 박탈이며, 마지막 네 번째는 영성 생활이 판단 받게 되는 억압이다.

1. 강요된 침묵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한다. 즉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은 곧 존재를 부정 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보건대 목회자 아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강요된 침묵을 경험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만들었다.

연구 참여자 B 경우, 성도로부터 침묵을 강요받았고, 심지어 그 활동까지도 제재를 받게 된다. 목소리뿐만 아니라 활동까지 제재를 받았다는 것은 목회자 아내가 더욱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악조건 속에 놓였다는 것을 말한다. 존재하지만 배제된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러한 교회 내 환경은 연구 참여자 F 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연구 참여자 F 는 조금 더 급진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이 교회 안에 자리 잡기를 소망했다. 그리고 목회자 아내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모든 여성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거나 침묵을 강요받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 참여자 I 경우에는 본래 말수가 적은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더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특히 목회자 아내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말할 수 없고, 혼자서 마음의 앙금을

해결해야 되는 목회자 아내라는 위치는 연구 참여자 I 로 하여금 더 답답함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 응답이다.

〈연구 참여자 B〉

심지어 제가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장로님 아내인 권사님이 말하기를 "교인들이 사모님을 신격화해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해서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더 이상 하면 안 좋을 것 같았어요. 마음이 많이 상했죠. 그 뒤에 당회에서 제 일을 제재했죠.

〈연구 참여자 F〉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페미니즘이나 이런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연구 참여자 I〉

저는 사모가 되기 전에도 그렇고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제 힘든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잘 말을 안 했거든요. 특히나 그냥 기도하면서 혼자 해결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사모가 되고 나서부터는 더 말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성도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다가도 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도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평신도였다면 훨씬 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혼자 기도하는 정도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응답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가정에서 남편 목회자로부터 침묵을 강요받는 경험은 전무하고, 대부분 교회에서 침묵을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험이었는데, 직접적으로는 성도들에 의해서 침묵을 강요받았고, 간접적으로는 한국교회 안에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억눌린 감정

교회는 개인적인 감정을 호소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다. 특히 허락되지 못한 사람 중에 두드러지는 존재는 목회자 아내이다. 그 위치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남편 목회자와 함께 목회에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현저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오히려 깊숙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질타가 있을 수 있기에 조심스럽기만 하다. 이 질타는 남편 목회자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성도들일 수 있다. 그렇다고 목회자 아내가 평신도의 위치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나 성도는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평신도처럼 자유분방하게 자신의 감정을 아무에게나 호소할 수는 없었고,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볼 것은 대부분 성도들과 관계 가운데 이러한 억눌린 감정을 경험한다.

연구 참여자 C 경우에는 남편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를 지켜봐야만 하는 입장을 말했다. 그렇다고 자신이 앞장서서 중재하거나 남편 목회자의 편에 설 수 없었고, 그 가운데 남편 목회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에는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눌러야만 했던 것을 말했다. 이를 자발적 복종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연구 참여자 D 는 자신의 자녀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을 억눌러야 했던 경험을 말하면서 그 감정의 골이 지속적으로 남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했다.

이처럼 목회자 아내들은 성도들 간의 갈등 속에서 감정을 억눌러야만 했고, 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서 성도들로부터 오는 억압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억압해야만 하는 이중적인 억압의 상태에 놓여있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 응답이다.

〈연구 참여자 C〉

제 성질대로 하면 막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는 일도 참는 경우가 있죠. 그게 사모이기 때문에도 그럴 것이고,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좋게 말해서 자발적 복종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연구 참여자 D〉

나는 사모이고, 어쨌든 주님의 제자로서 산다고 하는 사람인데, 성도들이 저희 아이들한테 못되게 군다고 해서 제가 성도들과 시비 붙어 싸울 수는 없죠. 그냥 참아 넘기고 그러죠.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을 하긴 하지만, 마음에 앙금이 남을 때도 있고 이게 저에게 과제로 남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 개인적인 시간의 박탈

인간은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고, 자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기에 반드시 이러한 시간을 확보하고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 상황에서 목회자 아내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란 결코 쉽지 않다. 다양한 이유가 목회자 아내들의 개인적인 시간을 침해하고 그럼으로써 한 여성이자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억압받고 있었다. 먼저 연구 참여자 C 는 목회자 아내라는 특수한 자리가 노출되기 쉬운 자리이다 보니 이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고정관념이 생기게 된 원인은 지난 한국교회에서 목회자 아내가 실제로 노출되어진 자리로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침범을 받아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 B 경우에는 목회자 아내로서 모든 교회 활동에 참여해야 하다 보니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에 큰 장애가 있음을 말했다. 연구 참여자 H 역시 이와 동일한 응답을 하였는데, 목회자 아내라는 이유로 남편 목회자로부터 주일 성수를 강요당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박탈당한 경험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 B 와 연구 참여자 H 경우는 목회자 아내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관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한국교회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한 인간이자 한 여성으로서 개인이 누려야 할 시간이 한국교회 내에 팽배하게 자리 잡은 목회자 아내에 대한 어느 특정한 관점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 F 는 목회자 아내이기 때문에 취직이나 대외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말하였다. 소위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여성 중에서 목회자 아내가 상당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응답은 한국교회 목회자 아내들이 얼마나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목회자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적인 시간이, 더 나아가 꿈이 송두리째 부정 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와 같은 연구 참여자들 응답이다.

〈연구 참여자 B〉

목회자 가정하면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만의 어떤 시간을 길게 가지려 해도 새벽 예배라는 게 일단 또 걸려요.

〈연구 참여자 C〉

목회자의 아내가 되고 나서는 그냥 많이 불편했어요. 그냥 노출된 어떤 자리에 있다고 봐야 될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제 생활 공간이라든가 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자유스러움이 있었죠. 성도들이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다기 보다는 제 고정관념이 아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더 그렇게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구 참여자 F〉

제 어려움이라고 하면 일단 다른 직업을 가지거나 자유롭게 대외 활동을 하는데, 아직은 제약이 있다는 것이죠.

〈연구 참여자 H〉

제가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목회자의 아내로 있으면서 사역도 안 하고 그럴 때 제가 해외에 친한 언니와 나가고 싶어서 나가겠다 얘기를 했고 비행기 표도 엄청 싸게 구했어요. 이 여행은 한 3주 정도 걸리는 거 같고, 그러면 주일 예배를 두 번 빠져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남편이 빠지는 게 아니고 저만 빠지는 건데, 그것도 억압이라고 생각해요.

4. 판단 받는 영성 생활

영성 생활은 공동체 영역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개인의 영성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한편으로 오히려 이 공동체가 개인의 영성 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특히 목회자 아내 위치가 노출되어진 자리이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다 보니 더욱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 B 경우 목회자 아내이다 보니 예배에 결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성도들이 걱정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걱정이 한편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반복되거나 지나치게 집중되면 목회자 아내는 성도들 가운데 개인의 영성을 판단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연구 참여자 H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만 한다는 시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되고, 결국 개인적인 영성 생활이

침해당한다고 여긴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가 되어버린 신앙생활은 나중에 목회자 아내에게 영적인 탈진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 H 는 이처럼 목회자 아내에게 높은 영성의 잣대를 대는 것에 비해 목회자 아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판단 받기에 가장 노출되어진 자리이지만, 그렇다고 교회 내에서 그 어떠한 권위도 없이 소외를 경험하는 것이 목회자 아내임을 말해준다.

연구 참여자 C 경우에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해 놓은 정형화되어진 틀 속에서 개인 영성 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했다. 이는 앞서 연구 참여자 H 가 말했던 것처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임을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 C 는 목회자 아내가 교회 내에서 지도자의 위치라는 것을 말하면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음을 말했다. 결국 이러한 강박은 연구 참여자 G 가 말한 것과 동일하게 영성 생활이 판단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목회자 아내들은 판단 받는 영성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 되어야 할 영성 생활이 공동체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 응답이다.

〈연구 참여자 B〉

교회에서 사모가 계속 나가다 하루만 안 나가도 교인들은 다 궁금해서 "어디 아픈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일반 평신도 가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장애가 될 수도 있죠.

〈연구 참여자 C〉

영성 생활하는데 아무래도 방해가 되는 것은, 대부분 교회 사택에서 지내시기 때문에 본인의 정한 시간과 정한 어떤 방법 속에서 영성생활을 하고 싶지만 방해받을 수 있죠…그리고 사모를 교회 리더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을 보여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을 의식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연구 참여자 G〉

보여지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판단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 영성 생활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 참여자 H〉

모든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새벽예배부터 수요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는 사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신앙생활일 수 있는 부분인데, 목회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억압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권위는 하나도 없죠.

D. 혼란을 겪는 정체성

이번 범주는 '혼란을 겪는 정체성'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단일한 역할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 여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중첩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역할 간 충돌이 일어나면서 갈등을 경험한다. 그래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고 이는 나란 존재를 소멸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 목회자 아내들 역시 이러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더군다나 자신의 모호한 위치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지 고뇌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혼란이 지속적으로 가중되면서 나란 존재를 상실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 여러 역할, 여러 정체성 사이에서 '본래의 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본 연구 가운데 목회자 아내들은 두 가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는 부교역자라는 비자발적 역할 갈등이고, 두 번째는 어머니라는 자발적 역할 갈등이다. 이 두 갈등 가운데 목회자 아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자존감의 상실을 경험했다.

1. 부교역자라는 비자발적 역할 갈등

한국교회 목회자 아내들의 위치는 모호하기만 하다. 평신도가 아니지만, 목회자만큼의 영성과 삶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목회자 아내가 목회 일선에 나서게 되면 반드시 그 저항을 받게 된다. 남편 목회자로부터의 저항일 수도 있고, 또는 성도들로부터 오는 저항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 아내들이 부교역자라는 비자발적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대부분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부교역자를 둘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를 목회자 아내들이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편 목회자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전통적인 사모상을 요구받는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자 아내는 혼란을 경험한다.

연구 참여자 B 경우에는 자신의 역할이 부교역자 역할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고 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 이를 부인하지 않고 부교역자 역할을 한다고 표현한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 B 는 부교역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중에 장로 아내인 어떤 권사로부터 저항을 경험하기도 했다. 심지어 당회에서 목회 활동에 관여하지 말라고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성도들 사이에서도 목회자 아내가 부교역자로서 역할을 하길 원하는 그룹과 이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룹이 나뉘어져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목회자 아내는 자신이 전통적인 사모의 역할을 해야 할지, 아니면 부교역자의 역할을 해야 할지 갈등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H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자기 자신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가 갈등하고 있었다. 목회자와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부교역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들까지 교회 내에서 그 역할을 해야 했다. 심지어 연구 참여자 H는 목회자 아내가 되기 전에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들이 중첩되면서 더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 응답이다.

〈연구 참여자 B〉

제 역할은 교회에서 약간 부교육자의 역할,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부교육자 역할을 우리 사모님은 다 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H〉

예전에는 밥을 했죠. 피아노를 치고요. 그러니까 예배 준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했어요. 주보도 만들고 자막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 부교역자로서 했던 역할들을 단독 목회에서 목회자의 아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역할도 하면서 여성으로서 교회 일까지 다 하는 존재인 거죠.

이처럼 목회자 아내들은 자기 스스로 부교역자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힘들어할 뿐 아니라 여러 성도들의 상반된 반응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혼란이 가중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나란 존재가 사라지고 역할 간 갈등 속에서 모든 것을 체념해버리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 어머니라는 자발적 역할 갈등

목회자 아내들은 교회 내에서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한편 가정에서는 어머니라는 자발적인 역할에서 고뇌한다. 이는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가 여성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 남성들은 가정 안에서 보다는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고 있기에 가정 안의 일은 대부분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성보다는 더 많은 부분 시간을 쏟고 있기에 그만큼 책임이 뒤따르기도 한다. 목회자 아내들 역시 다르지 않다. 목회자 아내들도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회자 아내로서 해야만 하는 일들, 요구받는 일들, 그리고 목회자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목회자만큼 영성과 삶을 요구받는 현실 앞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충돌을 경험했다.

연구 참여자 B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했기에, 자신의 영성 생활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음을 말했다. 즉 어머니라는 자발적 역할과 목회자 아내로서 책임감 있게 영성 생활을 하려는 부분에서 갈등을 경험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 D 는 목회자 아내이기에 재정적인 부분을 스스로가 감내할 수는 있지만, 자녀들까지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괴로움을 호소했다. 목회자 아내이기에 희생하고 감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머니이기도 하기에 자녀들의 고통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목회자 아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그 역할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무기력함은 정체성 혼란을 넘어서 정체성 소멸까지도 경험케 할 것이다. 다음은 이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 응답이다.

〈연구 참여자 B〉

저는 결혼 전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왔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새벽기도회를 매일 나가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영성 생활에 큰 변화는 없었는데, 이제 제가 두 아이를 낳고 나서 있었습니다. 영성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지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든든히 서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D〉

자녀들이 "우리는 왜 맨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런 얘기할 때 아이들한테

무언가 필요를 빨리 채워주지 못하는 무능한 부모처럼 될 때 제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돈 문제만 터지면 낮아지는 나를 발견하죠. 그래서 제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E. 영성 훈련을 통한 돌파구 모색

본 연구의 다섯 번째(표 4: E) 범주는 '영성 훈련을 통한 돌파구 모색'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목회자 아내로서 영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영성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신앙 연륜과 깊이와는 별개로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영성 생활은 목회자 아내들에게 있어서 뗄 수 없는 중요한 삶의 가치관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목회자 아내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영성 훈련의 한 방편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었다. 첫째는 개인적인 영성 훈련과 둘째는 공동체적 영성 훈련을 통한 회복을 말했다.

1. 개인적 영성 훈련

목회자 아내들은 특히 개인적인 영성 훈련에 대해 대부분 제안을 했는데, 그 중심에는 기도와 말씀을 통한 영성 훈련이 주를 이루었다. 연구 참여자 I 경우 기도를 통해서 억눌렸던 감정들을 하나님께 호소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했다. 더 나아가 연구 참여자 C 와 연구 참여자 H 는 기도 중에서도 침묵기도에 대해 말했다.

또한 목회자 아내들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한 영성 훈련을 많이 언급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 B 는 목회자 아내들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성경읽기나 성경공부를 제안하였다. 성경이 본래의 나를 찾도록 만드는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D 역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나누면서 억눌린 자신을 해방하는데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목회자 아내들의 영성 훈련은 현재 자신의 내면에 자리잡은 상처와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출구였고, 결국에는 자기 주도적인 존재 양식을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 F 경우는 주목해 볼만한 영성 훈련의 한 방편을 말했다. 그것은 바로 페미니즘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여성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면 목회자 아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기존에 성경을 묵상하거나 해석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의 묵상과 해석에 국한되어져 있고, 대부분 남성의 눈으로 해석되어지고 묵상 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F 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한 여성이자,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노력하고 있었다. 다음은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 응답이다.

〈연구 참여자 B〉

사모들이 영성 훈련을 해서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자신만의 어떤 말씀 읽기 또는 말씀 공부가 필요하죠.

〈연구 참여자 C〉

침묵 기도나 기타 이런 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조용하게 머무르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D〉

저희 교회는 묵상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해서 카톡에다 올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해요.

〈연구 참여자 F〉

이제 틈틈이 페미니즘 관련된 책을 읽고, 페미니즘과 기독교가 같이 연결된 서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성경을 다시 여성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연구 참여자 H〉

그냥 혼자서 침묵 기도는 해봤는데, 그런 시간을 점점 늘려가면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I〉

마음의 감정을 계속 털어놓거나 하나님께 계속 털어놓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2. 공동체적 영성 훈련

목회자 아내들은 개인적인 영성 훈련의 시간이 있는 반면에 공동체 영성 훈련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F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훈련을 하기보다는 외부에서 공동체 영성 훈련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들이 모여서 여성들만의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대부분 남성 중심의 예배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순서와 예식을 직접 만들어서 예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한 여성이자 한 인간으로서 회복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G는 교회 공동체보다는 가정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할 영성 훈련을 제안했다. 특히 목회자 아내들이 남편 목회자로부터 여러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자존감이 상실되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남편 목회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 참여자 G는 남편 목회자가 변하지 않으면 목회자 아내들이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 응답이다.

> 〈연구 참여자 F〉
>
> *한국 교회 대부분의 예배는 제가 느끼기에는 남성 중심이거든요.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아니면 예배에 사용되는 사소한 것들도 굉장히 남성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강대상이나 이런 예배 제단 이런 부분들도 말이죠. 그래서 여성주의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성들이 예배를 주관하게 하고, 제대나 성찬 예배 공간도 여성들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꾸미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제 영성생활에서는 가장 큰 영성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
> 〈연구 참여자 G〉
>
>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갈 수 있고, 목사님이 사모님의 자존감과 사명을 세워줄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사모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육에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목사님이 바뀌지 않으면 사모님들은 움직일 수 없거든요.*

이처럼 목회자 아내들은 개인적인 영역의 영성 훈련과 공동체 영역의 영성 훈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데 노력하거나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목회자 아내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크게 기도, 말씀, 예배, 세 가지의 영성 훈련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기독교 영성 훈련은 남성 중심의 영성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목회자 아내들이 가부장적인 한국 가정과 교회에서 자기 주도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한계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페미니스트 영성과 연결하여 페미니스트 영성 훈련을 개발한다면 목회자 아내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Chapter Ⅲ

페미니스트 신학과 영성 이론(Feminist Theology and Spiritual Theory)

나는 심층 면담을 통해 목회자 아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가부장 문화가 낳은 가치를 내재화한 정체성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부장제에 내재화가 되어서 가부장적인 언어와 경험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본래의 자신이 아니라 가부장제에 길들여진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결국에는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다.

둘째, 대상화된 정체성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특히 남편 목회자로부터 대상화된 존재로 여겨지는 경험들을 했다. 즉 한 여성이자 한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도구적인 성격의 존재로 치부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경험들에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대부분 체념하고 있었다.

셋째, 억압당하는 정체성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억압의 경험을 대부분 성도들로부터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목회자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감정을 억눌러야만 했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억압의 환경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음으로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갔다. 이는 본래의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었다.

넷째, 혼란을 겪는 정체성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역할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여러 역할을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혼란이 가중되어서 자책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는 가정에서 어머니라는 자발적인 역할과 교회에서

부교역자라는 비자발적 역할이 목회자 아내라는 역할과 갈등하면서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네 가지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목회자 아내는 한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전 생애를 송두리째 남편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내어주고 있었다. 한편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영성 생활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는 개인적인 영성 생활과 공동체 영성 생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영성 생활과 페미니스트 영성 이론을 접목하여서 페미니스트 영성 훈련을 제안하여 목회자 아내들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페미니스트 신학 이론과 페미니스트 영성 이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 페미니스트 신학

본 연구에서 이론 배경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페미니스트 신학이다. 여기서 페미니스트 신학의 근간이 되는 페미니즘 이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이재경은 페미니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페미니즘의 다양한 갈래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는 ① 여성은 체계적으로 억압당해(oppressed) 왔으며, ② 젠더 관계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되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③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실천(political commitment)의 의미를 포함한다. 페미니즘은 '이론'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차별적 조건이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경험과 서로 연결되고, 이것이 우연한 개인적 불행의 결과가 아니라 체계적 억압의 사례라는 점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이론의 성격을 지닌다.[87]

---

[87] 이재경 et al., *여성학*, 30.

페미니즘은 여성이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주축으로 이를 분석하고 불평등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페미니즘이 여성 우월주의를 위한 이론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남성 혐오를 부축이거나 여성의 우월의식을 고취시키는 이론이 아니다. 정희진에 따르면, "여성주의는 남성을 미워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이든 증오든, 이제까지 남성에게 쏟았던 기운을 여성 자신에게 돌릴 것을 제안한다."[88] 이제까지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탈피하여 여성인 자신을 그 중심에 두도록 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핵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남순은 페미니즘 이론의 기본 개념은 "여성도 인간이라는 급진적 주장"[89]이라고 말한다. 결국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대립을 조장하는 이론이 아니라 소외되고 왜곡되었던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한 인간으로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수임에 따르면, "페미니즘은 본질적으로 여성의 삶에 대한 것이다."[90] 즉 페미니즘은 여성의 경험과는 불가분의 관계일 수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목회자 아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 면담을 실시했다. 하지만 심층 면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목회자 아내들은 남편 목회자와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종속된 존재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경험을 무의식중에 상실하거나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가운데는 개인적인

---

[88]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77.
[89] 강남순, *21 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24.
[90] 정수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서울: 서유재, 2018), 59.

시간이 박탈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여성으로서 자신만의 경험보다는 타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경험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영성의 경험 조차도 타자에 의해서 판단 받게 되어 부자연스러운 영성 생활을 하고 있었다. 결국 목회자 아내들은 자신만의 경험이 박탈당하고, 영성 생활조차 판단 받는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억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페미니즘을 '여성주의'라고 사용하게 되면 세 가지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고 강남순은 말한다. "첫째, '여성중심주의'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으며, 둘째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과의 '교차성'을 상실할 수 있다. 셋째, '여성주의'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정치성의 결여'이다."[91] 그래서 페미니즘을 여성주의로 읽게 되면 이는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범주 안에 페미니즘을 가두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페미니즘 이론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페미니스트 신학 역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일단 강남순에 의하면, "페미니스트란 가부장적 성차별주의에 근거하여 구성된 가치관, 제도, 구조, 의식 등을 근원적으로 비판하는 시각을 지닌 사람이라는 개념이다."[92] 그러면서 강남순은 페미니스트와 페미니스트 신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페미니스트를 여성주의자, 여권주의자, 여성해방주의자 등으로 번역하는 것은 페미니스트의 우선적 관심을 일부 드러내긴 하지만, 오히려 여성우월주의자 등으로 오도될 소지가 있으며, 페미니스트라는 용어가 21세기에 들어서서 함축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페미니즘을 여성주의라고 하지 않고, 또한 페미니스트 신학을 여성 신학이라고 하지 않고 음역하여 쓰는 이유이다.[93]

---

[91] 강남순, *페미니즘 앞에 선 그대에게*, 39-40.
[92] 강남순, *21 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26.
[93] 강남순, 26-27.

이러한 페미니스트 신학의 핵심은 한 인간으로서 진정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즉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진정성 있게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또한 김정숙에 의하면, "기독교 전통 신학이 오직 남성의 관점으로 남성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영적 차원, 초월적 차원에서조차 여성을 배제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페미니스트 신학의 출발점이 되었다"[94]고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 참여자 C 경우는 남편 목회자로부터 영적 차원에서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영적인 종속 관계 가운데 살아갔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진정한 페미니스트 신학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신학은 왜곡되어지고 뒤틀린 기독교 전통 신학의 궤도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 비판 신학으로서 페미니스트 신학

박충구에 의하면, "비판 신학은 사회 정치에 비판적인 해방신학, 성차별에 대해 비판적인 여성 신학,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환경 신학 등을 비판 신학이라고 한다."[95] 그러면서 박충구는 "신학의 총체적 시각보다는 부분적이며 특수한 문제들을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 신학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야들이다"[96]라고 한다. 이처럼 비판 신학으로서 페미니스트 신학에 대해 강남순은 이렇게 설명한다. "기독교 신학과 전통이 여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의 소외와 억압을 합리화하고 강화 해왔음을 분석하고 비판함으로써, 기독교의 신학, 상징, 또한 제도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97] 이러한

---

[94] 김정숙, "21 세기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신학의 지형도," *신학과세계* 48 (June 2010): 113.
[95] 박충구, "비판신학으로서의 여성신학," *한국여성신학* 27 (September 1996): 98.
[96] 박충구.
[97] 강남순, *젠더와 종교*, 117-18.

비판은 기존의 기독교 전통이 갱신되어질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페미니스트 신학 관점에서 기독교 전통은 남성 우월주의에 치중한 전통이자 가부장제적 형태로서 여성을 억압하는 공동체로 여긴다.

연구 참여자 F 경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 형태가 남성 중심적인 예배라고 보면서, 여성 중심 예배에 대해 고찰해보고 있었다. 이는 기존 교회 예배를 갱신하고자 하는데 비판신학으로서 페미니스트 신학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서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지극히 남성 중심 해석으로만 치중되어져 있다는 점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기독교와 페미니즘과 관련된 책을 통해 성서를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진미리에 의하면, "쉬슬러 피오렌자의 비판적 페미니스트 작업은 성서 텍스트와 교회, 그리고 사회 전반에 가부장적인 위험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데 유익하다는 점에서 옳다"[98]라고 말한다. 여기서 피오렌자(Fiorenza)의 비판적 페미니스트 작업은 비판신학으로서 페미니스트 신학에 있어서 단순히 기독교 신학과 전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뛰어넘어 목회자 아내들이 이러한 가부장제에 내재화된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한다. 특히 피오렌자(Fiorenza)가 말하는 비판은 이데올로기 비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진미리는 "이데올로기 비판은 모든 사회적인 삶의 과정들을 자기반성적으로 이해하는 작업"[99]이라고 말한다. 즉 무의식적으로

[98] 진미리,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Elisabeth Schussler Fiorenza)의 해방의 비판적 페미니스트 전략에 있어서 비판개념의 특성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한국여성신학* 80 (February 2015): 155.

[99] 진미리, 146.

가부장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목회자 아내들이 기존의 기독교 전통과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비판 신학으로서 페미니스트 신학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기독교 신학, 전통, 예배, 상징, 제도 등 전반적인 가부장적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더 나아가 목회자 아내들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까지 갱신되어질 필요성과 요청을 하도록 만든다고 할 수 있다.

2. 해방신학으로서 페미니스트 신학

해방신학은 목창균에 의하면, "가난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목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상황 신학이다. 성서 본문보다 역사적 현실과 상황을 신학의 근본 자료로 삼은 것이 해방신학의 특징이다."[100] 이러한 해방신학은 페미니스트 신학과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 두 신학은 억압에 대한 해방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신학은 구원이라는 범주를 해방이라는 범주와 연관시킨다. 그리고 해방신학에 있어서 죄는 억압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수한 구조를 거론한다."[101] 또한 강남순도 해방신학과 페미니스트 신학의 공통적인 관점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첫째, 성서가 주는 해방에 대한 약속이 이 두 신학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둘째, 이 두 신학 입장에서 인간과 세계는 역사적인 것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이 두 신학은 구원을 영적 사건이 아닌 사회적 사건으로 본다는 것이다.[102]

---

[100] 목창균, *현대 신학 논쟁* (서울: 두란노서원, 2010), 343.
[101] 임철규, "해방신학: 해방의 신학적 의미와 실천," *이론* (October 1993): 204.
[102] 강남순, *젠더와 종료*, 120–21.

이러한 두 신학의 공통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강남순은 “해방신학으로서 페미니스트 신학은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가치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다”[103]라고 한다.

반면에 피오렌자(Fiorenza)는 해방신학과 페미니스트 신학이 억압이라는 용어를 기준으로 같은 맥락을 따르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 억압이라는 용어가 두 신학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고 본다. 피오렌자(Fiorenza)에 의하면, “해방신학자들과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경험한 억압의 경험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해방신학은 성서 텍스트를 통해 해방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무기로 사용하지만, 페미니스트 신학에서는 오히려 성서가 해방적인 요소이기도 하나 억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도 말한다.”[104]

연구 참여자 E 경우에는 남편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에 남편 목회자 말이라면 순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곧 성서가 해방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그래도 해방신학과 페미니스트 신학에서 억압 경험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떤 무언가로부터 표면적인 의미로서의 억압을 경험하고, 또한 억압으로부터 표면적인 의미로서 해방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해방신학이 성서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억압 상황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페미니스트 신학이 여성 억압에서 시작되었다는 점과 상통하기에 해방신학으로서 페미니스트 신학은 목회자 아내들이 경험한 억압을 영성 훈련을 통해 해방 경험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본다.

---

[103] 강남순, *젠더와 종교*, 119.
[104] 강남순, 121-22.

B. 페미니스트 영성

본 연구 두 번째 이론 배경이 되는 것은 페미니스트 영성이다. 일반적으로 영성은 특정 종교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추수경에 의하면 "영성이란 인간의 의식과 삶의 양식, 그리고 신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통틀어 영성이라고 한다."[105] 이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영성은 또 다른 의미가 된다. 김경은에 의하면,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인간이라는 기독교 인간학에 근간한다."[106]

그런데 전통적으로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인간이 아닌 남성에 집중되어져서 전개되어 왔다. 그 가운데 여성은 배제되어지고 남성의 영성에 종속되어진 존재가 되어 영적인 상하관계에서 피교육자의 위치에 있어 온 것이 여성이다. 이에 대해 이혜순은 특히 한국 교회의 여성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존에 여성들이 얼마나 남성중심의 영성에 종속되어왔는지를 말한다. "첫째, 가부장적인 가정과 교회의 환경 가운데 눌려 있던 여성들이 신비주의적이고 무속적인 영성에 도취되었다. 둘째, 남성적 이미지에서 형성되어 온 영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남성들에 의해서 차별과 억압을 받았던 경험을 여성들은 공유하고 있기에 비지배적이고 비경쟁적인 관계 가운데 공동체성을 띠고 있는 영성이다."[107]

그러나 이는 한국교회에만 국한되어진 남성중심의 영성은 아니다. 다만 가부장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 속에서 남성 지배적인 기독교 영성이 융합되면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적인 영성이 더욱 가시화된 것뿐이다. 사실상 기독교 영성은 남성 중심의

---

[105] 추수경, *목회자 사모의 영성훈련에 관한 연구*, 36.

[106] 김경은, "개신교 영성훈련의 현재와 전망,"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2 (October 2016): 196.

[107] 이혜순, "한국여성신학의 영성," *한국여성신학* 15 (September 1993): 45-46.

왜곡된 방향성을 가지고 형성되어져 왔다고 보는 것이 페미니스트 영성의 관점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강남순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 페미니스트 신학적 영성이나 페미니스트 영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에 대한 분명한 비판과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대안적 사고이다.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 없이 전개되는 영성은, 여성들이 주도한다고 할지라도 페미니스트 영성 또는 페미니스트 신학적 영성으로 분류하기 어렵다.[108]

즉 페미니스트 영성은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전제하고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영성 관점에서 목회자 아내들의 정체성을 분석해볼 때 대부분 복종 영성이다. 이에 대해 손승희는 이렇게 설명한다:

> 위계적 남녀관계를 절대화시키고 신성화시키는 유대-기독교적 신화와 더불어 남성인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의 영성은 남성들에 대한 복종이라는 남녀관계의 규범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받을 때에도 여성의 자율적 결단이나 자율적 힘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서는 제외되고 오직 남성의 자율적 선교사명에 대한 보조적 봉사에 한정시킨다.[109]

실제로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전통적인 사모상을 요구하는 환경 가운데 있었다. 이는 남편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이미 가부장제에 내재화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은 남편 목회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식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부분이 자기 자신에게 적절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환경에 지배를 받아 목회자 아내는 복종하는 존재이자

---

[108] 강남순, *21 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229.

[109] 손승희, “한국교회와 여성의 영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5, no. 1 (May 1989): 126-27.

보조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복종 영성으로 인해 도구화 되면서 착취 대상으로 전락하여 대상화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데에는 남성화 된 기독교 영성이 교회와 성도, 특별히 목회자 아내들의 영성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은정은 다음과 같이 이 현실을 설명한다:

> 영성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영적인 지도자들과 영성적인 서적의 저자들은 대부분이 남성들이었다. 사실상 모든 신학자들은 남성들이었다. 여성들의 종교적 규율 안에서조차 대부분의 것들은 남성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남성이 쓴 책으로부터 이끌어 낸 것이다. 남성 경험의 우세성이 여성의 영성 형성에 준 영향은 매우 분명하다.[110]

그래서 페미니스트 영성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기반하고 있다. 첫째, 신 젠더에 대한 이해이다. 둘째, 여성 억압과 해방 경험이다. 셋째, 위계와 지배 전통 해체이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영성 세 가지 특징은 남성의,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영성 지배양상으로부터 해방되어 목회자 아내들이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페미니스트 영성 훈련을 제안하는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다.

1. 신 젠더에 대한 이해

페미니스트 영성에서 신 젠더에 관한 논의는 핵심 중에 하나이다. 여기서 먼저 젠더(gender)에 대해 정수임은 이렇게 설명한다:

> 젠더(gender)와 섹스(sex)는 모두 우리말로 성(性)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두 단어는 차이가 있다. 젠더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조직되는 방식을 지칭하는 말이고 섹스는 생물학적 의미의 성을 뜻한다. 생물학적 차이를 드러내는 섹스와 달리 젠더에는 생각이나 행동 방식, 태도, 용모 등이 모두 포함되어

---

[110] 김은정, "아시아 여성의 영성," *한국여성신학* 29 (March 1997): 55.

있다.[111]

즉 젠더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산물임을 뜻한다. 이러한 젠더 개념을 토대로 신에 대해 생각해보면, 대부분 기존 기독교 전통은 여성 신이 아닌 남성 신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가 남성으로 상징되어지고, 그에 따라 부수적인 종교적 상징물들이 남성을 중심에 두도록 하면서 여성들은 가부장제의 내재화를 경험하게 된다. "교회가 신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초월하는 분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왕, 군주, 지도자와 같은 남성적인 이미지로 묘사함으로써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정당화하거나 여성들이 내재화 되도록 만든 것이다."[112] 이로 인해 "남성은 신성하지만 여성은 신성하지 않다는 이미지를 주입하게 되고,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이미지가 형성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징적 위계질서를 형성시키게 된다."[113]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는 목회자 아내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남편 목회자를 위해 존재하는 보조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심지어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자신을 보조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자신은 남편 목회자에게 종속되어진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목회자 아내들의 반응은 남편을 보조해야 된다는 오래된 교회의 전통과 관습 가운데 남성 중심의 문화가 교회 안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는 남성 중심화 되어진 교회의 상징적 체계가 작용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

[111] 정수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33.
[112] 박만, *최근신학연구* (서울: 나눔사, 2002), 55.
[113] 강남순, *젠더와 종교*, 128.

가운데 신에 대한 남성적 이미지는 목회자 아내들이 가부장제에 대한 내재화를 경험하도록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영성에서는 남성신이 아닌 여성신을 주창하였다. 그렇다고 모든 페미니스트 영성 주류들이 주창한 것은 아니고, 이 또한 세 부류로 나뉘어진다. "첫째, 성서주의적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의 견해로써 성서와 기독교 전통 안에서 신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에 대해 중성적이거나 양성적인 상징언어를 사용하면 된다고 본다. 둘째, 개혁주의적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의 견해이다. 이들은 성서와 전통이 성차별적인 요소와 함께 비성차별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신을 명사로서의 존재(being)가 아니라 동사로서의 존재(be-ing)로 본다. 즉 신에 대해 어떠한 성별에 특정 지어서 규정하지 않고 초월적인 존재로서 명시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급진주의적 페미니스트 신학자들로서 이들은 성서와 기독교 전통 자체가 성차별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성서와 기독교 전통을 탈피하여 여성신을 주창한다. 기존의 성서와 기독교 전통이 신을 남성 신으로 상징화했던 것을 여성 신으로 상징화하는 작업을 하자는 것이다."[114]

본 연구에서는 성서주의적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신에 대해 중성적이거나 양성적인 접근을 할 것이며, 또한 여성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기존 남성적 이미지가 강했던 요소들을 축소함으로써 목회자 아내들이 균형 잡힌 영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만드는데 이론적 토대로 활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혁주의적 페미니스트의 경우 성서에서 말하는 신을 너무 초월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신에 대한 이미지에 이질감을 주고

[114] 강남순, *젠더와 종교*, 133-44.

있으며, 급진주의적 페미니스트의 경우에는 남성 신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여성신을 강조함으로써 성서에 나타난 신을 오히려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서주의적 페미니스트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신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만드는 균형 있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2. 여성 억압과 해방 경험

페미니스트 영성에서는 여성 경험을 중요하게 여긴다. 기존 기독교 영성이 남성 경험에만 치중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성 경험 역시 기독교 영성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여성 경험은 억압 경험과 해방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강남순에 의하면, "여성 경험은 전통적인 여성 억압 경험과 그것을 극복하는 여성 해방적 경험, 즉 여성의 힘을 박탈당한 경험과 여성의 힘을 새롭게 재건하는 여성 해방적 경험을 모두 포함한다"[115]고 말한다.

그러면 먼저 여성 억압의 경험은 어디서 출발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월터 윙크(Walter Wink)에 따르면, "가족은 가부장제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남성 지배의 성채요, 성별로 역할 분담을 되풀이하여 교육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중요한 억제자다"[116]라고 한다. 즉 여성 억압의 경험은 가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가족문화는 유교 문화권 안에 깊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향을 받았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

[115] 강남순, *21 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237.

[116] Walter Wink, *Engaging the Powers: Discernment and Resistance in a World of Domination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지배체제 속의 악령들에 대한 분별과 저항*, trans. 한성수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13), 230.

강남순은 “유교가 본원지인 중국에서 보다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한국 사회에 미치고 있으며, 유교의 가족 이해는 한국 가족 담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분석 대상일 수밖에 없다”[117]고 한다. 결국 한국 가족은 유교 가족 윤리를 바탕으로 모든 언어와 분위기와 관계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유교의 가족 윤리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가족 내의 구성원에게만 적용되는 폐쇄성이 있다. 둘째, 가족 간 위계적인 구조가 형성되어져 있다. 셋째, 여성의 의존성이 강하고 복종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한다.”[118]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의 기독교가 이 유교의 가족 윤리를 교회까지 끌고 들어오게 되면서 심각한 유교적 기독교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교 가족 윤리로부터 탈피하지 못한 여성과 남성 지도자들이 교회 내에서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중심에는 남성 목회자들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결국 목회자 아내들은 유교 가족윤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남편 목회자로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억압을 경험하게 된다. 물론 남편 목회자만이 아니라 유교 가족 윤리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억압은 유효하다.

본 연구에서 목회자 아내들의 심층 면담 가운데 이러한 억압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전통적인 사모상을 요구하는 경우, 착취 대상이 되어서 도구화 되는 경우, 강요된 침묵과 이로 인해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목회자 아내들의 고백은 그 동안 목회자 아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억압을 여러 형태로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남편 목회자로부터

---

[117]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93.
[118] 강남순, 193.

억압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한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억압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내에서 억압을 경험하는 경우에 남성 성도들보다는 여성 성도들이 목회자 아내를 억압하는 사례가 다수라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교회 여성 성도들이 남성 성도들만큼 유교 가족윤리에 내재화를 경험한 상태이며, 남성만큼이나 한국교회를 유교적 기독교로 만든 장본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목회자 아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상실한 대상화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내가 아닌 타자가 자신을 결정하고 형성시켜 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Young)이 정체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도움이 된다. 영(Young)에 의하면, "정체성은 타인이 우리를 누구라고 보는 지와 관련되어서 규정되는데, 타인은 우리가 속한 집단에 비추어서 우리를 식별하기 때문이다."[119] 즉 목회자 아내들은 유교 가족 윤리로부터 탈피하지 못한 대부분의 남편 목회자와 성도들로부터 위계 구조에서 하위계층이자 복종을 해야 되는 존재로 규정되면서 자연스레 억압 경험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목회자 아내들 가운데는 내재화를 경험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다음은 여성 해방적 경험이다. 여성 해방 경험은 억압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한 경험이다.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해방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방을 경험하기 위해 억압을 정당화할 수 없다. 다만, 여성은 그 동안 억압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 역시 지속적으로 경험해왔다. 이러한 여성 해방적 경험에 대해 피오렌자(Fiorenza)는 해방신학과 연관하여 이렇게

[119]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17.

설명한다. “해방신학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이 성적, 문화적, 그리고 신학적 제도 안에 있는 여성으로서 자신이 억압당한 경험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데 바탕을 둔 것이다.”[120] 즉 억압당한 경험으로부터 해방의 경험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방의 경험은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성 중심적인 가치로부터 탈피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경험될 것이다.

이러한 여성해방은 남성의 해방과 다른데, 김은정에 따르면, “여성해방의 틀은 전통적인 남성들의 틀과 달리 정복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양육하고, 협동하는 모델에 기초해서 모든 인간의 철저한 해방을 촉구한다.”[121] 목회자 아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억압의 경험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목회자 아내들은 억압자에 대한 정복과 경쟁의식이 아닌 돌보고, 양육하고, 협동하는 모델로서 영성 생활이라는 기초를 바탕으로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고자 그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었다. 물론 영성 생활이 판단 받게 되는 부정적인 환경이 억압적인 요소가 되기도 했지만, 목회자 아내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변치 않는 정체성으로서 영성 생활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여성 억압 경험과 해방 경험은 페미니스트 영성 특징 중 하나로서 목회자 아내들이 경험한 억압 경험으로부터 해방 경험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영성 훈련이 여성해방의 틀에 적합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

[120] Elisabeth Schussler Fiorenza, *Toward a Feminist Biblical Hermeneutics: Biblical Interpretation and Liberation Theology 여성해방의 성서해석학을 향하여: 성서해석과 해방신학*, trans. 유연희 *세계의신학* 2 (April 1989): 80.

[121] 김은정, “아시아 여성의 영성,” 63.

3. 위계와 지배 전통 해체

페미니스트 영성은 기존 교회의 위계적이고 전통적인 것을 거부한다. 이는 목회자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만큼 한국 가정과 교회가 위계적이고 전통적인 환경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먼저 이재경은 한국 가족구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 우리 사회에 가족관계는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 강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다는 믿음이 있다. 이른바 핏줄 의식은 이러한 가족 간 유대감을 단적으로 나타내 준다. 그런데 이 혈연은 남성중심적으로 인식된다. 가부장제 가족제도는 부계, 부거, 부명의 제도로 이루어진 부권제도다 혈연을 남성들 간의 계보로 인식하게 하는 부계제도 속에서 처계와 모계 등 여계는 삭제되고, 여성은 계보를 이어주는 도구적 존재가 된다.[122]

이러한 유교적 가족구조는 자연스럽게 호주제라는 법 테두리를 만들도록 했다. 이는 "일본이 식민 강점기 때 만들었던 가족 단위 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법으로서 하나의 호적에 등재된 사람들을 법적으로 가족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가족을 대표하는 색인자를 필요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호주이다."[123] 이 호주는 오로지 남성만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서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이 남성 중심 호주 제도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한국 가족구조는 남성 중심 위계질서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한 가족이라고 하지만 서로 다른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데,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위계적인 구조 속에서 지배를 경험한다. 민가영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 한국의 가족은 사회적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구조화되므로 남성과 여성, 소년과 소녀가 같은 가족 경험을 갖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권력관계가

---

[122] 이재경 et al., *여성학*, 186-87.
[123] 정수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151.

> 만들어내는 가족 경험의 충돌과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천국 같은 이미지로 신비롭게 그려졌던 가족 경험을 모든 가족이 가지지도 않고 한 가족이라고 동일한 가족 경험을 갖는 것도 아님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그들은 가족 안에서의 남성 지배, 갈등, 폭력,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 등을 경험한다.[124]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 특히 주변화를 경험한 경우를 보면, 성도들로부터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남편 목회자로부터 경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서 주변화는 곧 무시와 배제를 의미하는데, 남편 목회자가 아내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경우가 한국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부장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여성과 남성 위계적 구조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는 유교적 가족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 가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이 영향이 지대하게 미쳤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유교적 기독교 형태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교회 내에 위계와 지배 구조 형태를 띠었다는 의미이며, 여성들은 가정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층 구조에 놓이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나 목회자 아내들은 남편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그 어떠한 권위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욱 등한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H 사례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연구 참여자 H 는 남편 목회자로부터 전통적인 사모상을 요구받았고, 더 나아가 고향 교회에서 목회자 아내로서 외모적인 부분까지 한 성도로부터 규제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한국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위계와 지배 구조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대부분의 목회자 아내들은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

[124] 민가영, *여성학 이야기* (서울: 책세상, 2007), 92-93.

환경이다 보니 거부감을 가지고 이에 저항하고자 하나 결국에는 수용하게 되고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가부장제에 내재화 되어진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계와 지배 구조의 한국교회에 대해 강남순은 이렇게 설명한다:

> 유교적 남성우월주의가 기독교와 합세해 한국 기독교가 더욱 강화된 성차별주의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이다. 유교의 지도력을 전적으로 남성이 독점한 것처럼, 교회, 교단, 그리고 신학계를 포함한 모든 한국 기독교계에서 여성 지도력의 배제 상황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여성 안수 등 법적으로 평등한 사안을 재정했다고 해도 실천적 장에서 성차별은 여전히 강력한 기제로 작용하며, 따라서 교회 안에서 여성이 하는 일은 대부분 가정에서 하던 일의 연장인 부엌일에 지나지 않는다. 기독교 전통의 가부장적 구조와 유교의 가부장적 정신이 합쳐지면서 한국 기독교는 강력한 성차별주의적 특성을 지닌 기독교로 발전해왔다.[125]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근본주의 신학은 더욱 한국교회가 위계와 지배 구조 형태를 곤고히 하도록 부축이게 된다. 근본주의 신학에 대해 최만자는 "여성 배제 문화에 근본주의 신학이 한몫을 했다고 지적하며, 한국교회 근본주의 신학은 초기부터 형성되었고, 지금까지도 지배적인 위치를 점령하고 있다. 이 근본주의 신학의 성격은 획일성, 진리의 절대성, 가부장적 가족상의 고착, 통제적 구조와 가치를 가지는 것 등으로 꼽힌다."[126] 실제로 이와 같은 근본주의 신학의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이론은 한국교회에서 여성의 위치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를 위해 성서가 억압의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첫째, 여성들은 소유물 내지 재산이자 도구로 여겨지도록 했다. 둘째,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여

---

[125]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04.

[126] 최만자, *여성의 삶, 그리고 신학* (서울: 기독교서회, 2005), 331.

타락시키는 존재로 여겨지도록 했다. 셋째, 여성은 남성의 지배를 받아야 할 정도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연약하여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지도록 했다."[127]

페미니스트 영성은 이러한 위계적이고 전통적인 구조를 거부하면서 남성 중심, 성직자 중심으로부터 탈피하고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위계와 지배 구조적인 예배 의식을 수평적인 구조로 변화시키는 과제는 페미니스트 영성이 위계적인 한국교회 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127] 박만, *최근신학연구*, 50.

Chapter Ⅳ

페미니스트 영성 훈련과 실천(Feminist Spiritual Disciplines and Practice)

A. 신 젠더에 대한 이해: 여성 이미지 상징언어를 통한 기도 훈련

스티브 하퍼(Steve Harper)에 의하면, "기도를 알려주는 안내자들은, 기도 생활 가운데 성장하게 된다고 말한다."[128] 또한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ster)는 "믿음의 최전방에서 탐험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삶의 변두리에 덧붙는 작은 습관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이며 그들이 가장 생산적인 시기의 가장 진지한 일이었다"[129]고 한다. 이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통로이자 삶 전체를 관통하는 영성 훈련이다. 이러한 기도를 두 가지로 설명하자면, "첫 번째는 대화로서의 기도이다. 이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쌍무적인 상황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경청과 말하기라는 두 가지의 행동이 요청된다. 두 번째는 교제로서의 기도이다. 이는 주로 관상을 의미한다. 관상기도의 목적은 내적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사랑을 찬미하는 것이다."[130]

이러한 기도가 남성 언어에 지배를 받아 가부장제를 주입하는 도구로 전락하였다. 이에 대해 "니체는 이성에 선행하는 에너지를 힘에의 의지라고 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를 실현하는 힘, 혹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131] 이러한 니체 이론, 힘에의 의지는 기독교를

---

[128] Steve Harper, *A Pocket Guide To Prayer 매일기도서*, trans. 정명성 (서울: kmc, 2013), 23.
[129] Richard J. Foster, *Celebration of Discipline 영적훈련과 성장*, trans. 권달천 and 황을호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4), 75.
[130] Thompson, *Soul Feast: An Invitation to the Christian Spiritual Life 영성형성 훈련의 이론과 실천: 기독교 영성생활로의 초대,* 68-87.
[131] Akinari, *賢者の思想本　西洋の思想家編 하룻밤에 읽는 서양철학*, 175.

비판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기독교가 진리보다는 권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인선은 이러한 니체의 비판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라는 신앙 언어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신앙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우월적 권력을 지향하는 가부장적 사회-문화를 만들어 내고, 남성이 여성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됨을 지적한다."[132]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고착화되어진 기존 성서와 기독교 전통 언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용어로부터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양미강에 의하면, "호칭 문제는 상징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남성 하나님을 연상시키며 동시에 기독교의 가부장성을 지지해주는 요소라는 점에서 성차별적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133]고 말한다. 그래서 "첫째, 신의 젠더를 중성화 하거나 양성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신에 대한 성서적 이미지와 철학적 개념에서 변화를 주는 것이다."[134]

특히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가장 많이 읽히고 고백 되어지는 것을 기독교 전통 안에서 찾아본다면,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창기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권고하는 자료가 있다.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개인별로 드리던 개인 기도를 점차적으로 발전시켜왔다는 초기의 증거들을 알고 있다. 1 세기 후반, 혹은 2 세기 초반의 것으로 보이는 디다케(Didache)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에 세 번 주기도를 하라고 권한다."[135] 이 외에도 기독교 전통 가운데 주로 많이 활용되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삼위일체주일에 읽히는 아타나시우스 신조 등이 있다.

---

[132] 나인선, "페미니스트 신학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가?: 삼위일체 예배를 통한 예배언어의 실행(Performance-doing)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9 (January 2016): 189.

[133] 양미강, "한국 페미니스트 목회를 위한 제안," *한국여성신학* 40 (December 1999): 69.

[134] 강남순, *젠더와 종교*, 133.

[135] James F. White,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기독교 예배학 개론*, trans. 김상구 and

이처럼 매일 같이 반복적으로 읽히는 기도문은 남성 중심의 언어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기도문에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주기도문,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용어를 중성화 하거나 양성화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다.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여성적인 이미지로 묘사한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성적 이미지와 용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도문을 작성해보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만 주목하며 기도해보는 것이다. 또한 페미니스트 신학 관점으로 자신만의 시편을 써보는 훈련을 해보면서 그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과 생각들을 자신만의 시편으로 승화시켜서 목회자 아내로 살아가면서 강요된 침묵과 억눌린 감정을 하나님께 표출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적 상상계가 필요하다. 여성적 상상계란 이희원에 따르면, "우리 문화가 아직 상징화하지 않은 영역으로서 서구 사상의 무의식이자 서양 철학에서 억압되어온 하부 구조이다."[136] 즉 기독교 전통 안에서 발현되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던 하나님의 여성 이미지를 충분하게 활용하여 남성 신 이미지를 탈피하고 균형 있게 본래 하나님을 찾아가 보는 것이다. 기존 기도문에서 남성적인 용어와 이미지를 중성적이거나 양성적으로 수정하고 여성 이미지를 활용하여 수정함으로써 페미니스트 영성을 기반으로 한 기도문을 작성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목회자 아내들이 그 동안 기존 기독교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남성 중심

배영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188.

[136] 이희원 et al., *페미니즘: 차이와 사이,* 298.

영성으로부터 탈피하는 작업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여성 영성을 회복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다음은 여성 이미지 상징언어를 통한 기도훈련이다.

〈표5〉 여성 이미지 상징언어를 통한 기도 훈련 가이드라인

준비단계	1) 필기도구, A4용지, 성경책을 구비한다. 2)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를 선정한다. 3) 긴장을 풀고 서서히 호흡하며, 하나님과 나만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며 기도로 준비한다.
유의사항	1)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진행한다(30분 이상). 2)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기도한다. 3) 자신의 모든 직책과 역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만 주목한다.
훈련 방법	1. 기도문 작성 1) 먼저 기도문(주기도문,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조 등)을 필사한다. 2) 기도문을 3회 읽어본다. 3) 기도문에서 남성적인 이미지와 언어를 색칠하거나 표시한다. 4) 잠시 눈을 감고 여성의 이미지를 상상해보고, 이를 언어로 표현해본다. 또는 그림을 그려도 좋다. 5) 이를 바탕으로 기도문에서 발견한 남성적인 이미지와 언어를 다르게 표현해본다.[137] 6) 새롭게 수정한 기도문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고 침묵 기도한다. 2. 자신의 시편 쓰기 1) 자신이 원하는 시편을 선택한다(13, 22, 42, 77, 88, 94편 등). 또는 다른 시편을 선택해도 된다. 2) 자신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시편을 반복적으로 정독한다. 3) 그 시편을 옆에 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신만의 시편을 써본다. 특히 억압받았던 경험과 감정, 고통들을 느껴지는 그대로 기록한다. 4) 자신만의 시편을 모두 기록했다면, 이를 가지고 다시금 읽어보며 기도한다.

[137] '부록 II: 여성들의 주기도문' 참조.

B. 여성 억압과 해방 경험: 페미니스트 성서 읽기를 통한 래버린스 묵상 훈련

페미니스트 신학 관점에서 성서에 대한 입장에 대해 윤철호는 이렇게 설명한다:

> 여성 신학은 기독교 전통과 신학의 규범과 전거로서의 성서 자체가 유대 사회라는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의 역사적 현실에서 기록되었으며, 그것을 기록한 저자가 대부분 남자였으며, 따라서 성서에 사용된 언어와 이미지가 남성 중심적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의 전통과 신학 속에서 성서에 대한 해석이 남성에 의해 독점되었고, 그 해석의 방법과 내용이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이었음을 직시한다. 결과적으로 성서는 본질적이든 비본질적이든, 본의이든 본의가 아니든 성차별적 선포와 교리와 전통과 현실을 만들어내는 데 일익을 담당했으며, 따라서 여성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적인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신학자들은 성서에 나타난 성차별적 본문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학적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여성해방을 위한 길잡이와 객관적 전거의 틀을 제시하려고 한다.[138]

이처럼 여성 억압과 해방의 경험이 동시에 발견되는 곳이 바로 성서이다. 이 성서는 여성에게 있어서 억압적인 도구가 되기도 했고, 해방을 주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먼저 강남순에 의하면, "여성 해방운동의 시초부터 교회와 사회에서 여성의 열등한 위치를 신이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성서를 오용해왔다"[139]고 말한다. 따라서 성서를 읽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읽고 해석할지에 대한 구분이 분명해야 한다. 잘못하면 성서가 억압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순은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한다:

>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성서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비판하지만, 사실상 현대의 목회자가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미 이러한 선택적 성서 읽기를 하고 있다. 즉 신의 진리를 보여주는 성서 본문은 끊임없이 인용하지만, 유대 시대의 사회상을 나타내는 성서 구절은 설교의 본문이나 신학적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월경 중에 7일 동안 여성은 부정하다는 레위기의 본문(15:19~30)을 현대의 목회자들이 신의 진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000명이 먹고 남았다는 진술에 나타난 숫자가 여성과 아이를 제외한 남성만의 수이지만 그렇다고 남자만 세는 것을 신이 명시한 것으로

---

[138] 윤철호, "페미니스트 성서해석학," *장신논단* 12 (December 1996): 244-45.
[139]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255.

보는 이들은 없다. 남성만을 수로 센 것으로 고도로 가부장주의적 사회였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규범적 인간을 남성만으로 보는 사회상을 반영했기 때문이다[140]

이러한 관점에서 목회자 아내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성서 해석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남편 목회자의 시각에서 읽히고 해석되어져서 선포되는 설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지고, 이러한 시각에 일방적으로 교육되어져 온 성도들 사이에서 목회자 아내의 정체성은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스스로도 이를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가부장제의 내재화 단계에 이르기도 한다. 즉 성서가 목회자 아내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성서는 여성 해방을 말하고 있다. 강남순은 "19 세기 여성운동을 처음으로 전개한 여성 운동가들에게 신앙적 확신을 준 것은 신이 남성만 아니라 여성도 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성서의 창조론이었다"[141]고 한다. 이처럼 성서는 여성의 해방 경험을 지지하는 성구가 존재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성서는 억압과 해방에 대한 양면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러한 양면적인 모습은 독자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서를 페미니스트 영성의 눈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페미니스트 영성은 성서를 여성의 억압과 여성의 해방에 대한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회자 아내들이 성서를 읽으면서 이러한 성서의 여성 해방적 기능을 체감하기란 쉽지 않다. 즉 대부분 전통적인 성서 읽기에 익숙해져 있는 목회자 아내들이 여성 해방적

---

[140]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277.
[141] 강남순, 278.

경험을 성서에서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만큼 여성의 눈으로, 해방의 눈으로 성서를 읽어보는 훈련이 따로 이루어질 때 전통적인 성서읽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성서를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페미니스트 성서 읽기 훈련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성서 읽기는 기독교의 영성 훈련 중 대표적인 영성 훈련 중 하나이다. 이를 영적 독서라고도 하는데, 톰슨(Thompson)에 의하면, "라틴어 *lecio* 로부터 영어의 lection 과 lectionary 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읽다'(read)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번에 한 입씩 베어 먹으면서 깊이 생각하고 천천히 읽어 내려간다는 뜻이며, 연애편지를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을 의미한다."[142] 즉 페미니스트 신학 관점에서 성서를 천천히 읽어보고, 이를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 페미니스트 영성을 기르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돕고자 한다.

하퍼(Harper)는 묵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 묵상(Meditation)은, 독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의 주변을 거니는 것을 말한다. 이를 가리켜, 생 빅토르 위고(Hugh of Saint Victor)는 마주한 진리의 핵심을 꿰뚫기라고 표현했다. 때로는 주어진 말씀을 더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 부가 자료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 묵상은 우리가 말씀을 자유롭게 탐구하는 작업인 동시에, 말씀이 우리를 면밀히 살피는 일이기도 하다.[143]

이러한 묵상에 도움이 되는 영성 훈련이 있는데, 바로 래버린스(Labyrinth) 묵상 훈련이다. 래버린스는 '거룩한 걷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는 바닥에 미로 형식의 래버린스를 만들어서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며 묵상하는 훈련이다. 본래 의미는 바깥에서의

---

[142] Thompson, *Soul Feast: An Invitation to the Christian Spiritual Life 영성형성 훈련의 이론과 실천: 기독교 영성생활로의 초대,* 57.

[143] Harper, *A Pocket Guide To Prayer 매일기도서*, 20.

‘나’로부터 출발하여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페미니스트 영성의 관점에서 래버린스 묵상 훈련을 진행한다면, 목회자 아내로서 억압당하던 ‘나’로부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본래 ‘나’에게로 이르는 과정으로 수정해볼 수 있겠다. 래버린스가 그려져 있는 공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책상에서 그림으로 그려서 손으로 미로를 따라 그리면서 묵상해볼 수 있다. 이는 앞서 페미니스트 성서 읽기를 통해 발견한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내용으로부터 탈피하여 페미니스트 신학 관점으로 여성 억압 경험과 해방 경험에 대해 묵상해보는 훈련이다.

이처럼 페미니스트 성서 읽기 과정을 통해 여성의 눈으로 성서를 읽는 연습을 하고, 이를 묵상함으로써 말씀을 자유롭게 탐구하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성서 읽기를 통한 묵상으로 해방적 경험을 목회자 아내들이 나누면서 한 여성이자, 한 인간으로, 본래 나를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강남순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과 경험의 공통성을 발견하고, 그러한 나눔을 통해 서로의 통전적 모습을 추구해 나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의식을 고양하는 것은 페미니스트 영성에서 중요한 과정이”[144]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성서 읽기를 통해 묵상한 내용을 목회자 아내들이 나누는 과정은 이들로 하여금 페미니스트 영성을 고양시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작업이라 하겠다. 다음은 페미니스트 성서 읽기를 통한 래버린스 묵상훈련이다.

---

[144] 강남순,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237.

〈표6〉 페미니스트 성서 읽기를 통한 '래버린스'[145] 묵상 훈련 가이드라인

준비단계	1) 필기도구, A4용지, 성경책을 구비한다. 2)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를 선정한다. 3) 긴장을 풀고 서서히 호흡하며, 하나님과 나만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며 기도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만 주목한다.
유의사항	1)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진행한다(30분 이상). 2)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읽고 기록하고 묵상한다. 3) 자신의 모든 직책과 역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만 주목한다.
훈련 방법	1. 성서 읽기 1) 성경 본문을 정한다(예: 요한복음 8장 1~11절). 2) 정한 성경 본문을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읽고 해석한다. 또는 이와 관련된 책이나 설교 동영상이나 설교문을 참고할 수 있다. 3) 전통적인 방식으로 읽힌 성경 본문에서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부분을 표시하거나 확인한다. 2. 래버린스(Labyrinth) 묵상 1) 래버린스 미로 입구에 볼펜을 찍고,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여성에게 자신을 대입해보며, 목회자 아내로서 겪었던 성차별과 억압과 상처에 주목하며 묵상해본다. 2) 볼펜으로 래버린스 미로 길을 따라 들어가며 그림을 그린다. 천천히 길을 따라 그리는 가운데 억압받고 상처 난 자신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상상하며 묵상한다. 3) 래버린스 미로의 중앙에 볼펜이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깊이 묵상한다. 4) 다시 볼펜으로 래버린스 미로의 중앙에서 입구로 그리면서 나올 때, 나를 창조하신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린다. 5) 마지막으로 묵상한 내용을 다른 목회자 아내들과 나눈다.[146]

[145] 자세한 사항은 '부록III: 래버린스 미로 그리는 방법과 완성본'을 참조.
[146] 묵상한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일기형식으로 기록을 한다.

C. 위계와 지배 전통 해체: 수평적 가정 예배 훈련

앞서 위계와 지배 전통에 물들어 있는 한국 가정과 교회에 대해 보았다. 이러한 구조에 영향력을 주어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페미니스트 영성 관점에서 예배예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구조 가정과 교회에 경종을 울리고, 자연스럽고 거부감을 주지 않는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 모든 가족과 교회 구성원이 동참하여 페미니스트 영성을 견지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편 목회자와 아내가 이 변화의 장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목회자 아내나 남편 목회자나 서로가 서로의 정체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에, 가정에서부터 수평적인 예배예식을 통해 목회자 아내와 남편 목회자가 페미니스트 영성을 견지하도록 돕고, 더 나아가 남편 목회자는 아내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도록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며, 목회자 아내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연구 참여자 G 의 응답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G 는 아무리 목회자 아내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한들 남편 목회자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였다. 반드시 남편 목회자도 함께 동참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목회자 아내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우러나오는 제안은 가족에서부터 수평적인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을 제안하도록 통찰력을 주었다. 실질적인 수평적 가족 예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톰슨(Thompson)에 의하면, "전례 liturgy 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의 leitourgia 에서 왔는데,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일이나 섬김을 의미한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경하고 찬미하게 위해 모이는 신실한 사람의 일이다."[147] 또한 화이트(White)는 "예배가 예전적(liturgical)이라는 것은,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모두가 다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48]고 말한다. 즉 특정한 성직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예배가 예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자들이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예전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예전은 말씀 예전과 성만찬 예전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를 페미니스트 영성의 특징 중에 하나인 위계와 지배의 전통 해체 방식으로 수정 보완하여 수평적 가정예배를 구상하고, 이러한 예배 훈련을 통해서 위계적인 한국교회의 목회자 가정에 변화를 줌으로써 목회자 아내들이 가정에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남편 목회자도 수직적인 한국교회와 가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변화에 동참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먼저 말씀 예전에 대해 화이트(White)는, "전통적인 말씀 예전의 핵심은 인간의 말을 통해서 묵상 되고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것"[149]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의는 오늘날 기독교 전통 가운데 대부분 남성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 해석되고 묵상 된 말씀이 선포되고 이를 일방적으로 듣고 반응하고 있는 목회자 아내와 성도들 모습을 떠오르게 만든다. 물론 양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말씀 예전을 진행한다는 것은 제약이 많이 따른다.

---

[147] Thompson, *Soul Feast: An Invitation to the Christian Spiritual Life 영성형성 훈련의 이론과 실천: 기독교 영성생활로의 초대,* 99.

[148] White,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기독교 예배학 개론*, 38.

[149] White, 237.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기존 전통으로부터 벗어난 형식의 말씀 예전을 진행함으로써, 한 사람이 성서를 해석하고 묵상하여 전달하는 방식의 성서 독점을 막고, 모든 구성원이 동참하여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여 나누는 수평적 구조의 말씀 예전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 예전의 핵심이 되는 성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수평적 가정 예배 훈련을 위해서는 먼저 상징적인 매개체를 활용하여 수평적 가정예배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정의와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 초,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 초, 부활을 상징하는 흰색 초를 점화하며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다. 대표기도 경우에는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 중직자가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예배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수평적 가정 예배 훈련을 위해서는 가족 중에 가장 연소한 구성원이 담당하도록 한다. 단 기도가 가능한 연령이어야 한다. 성경 봉독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봉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형식의 본문은 가족 구성원들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의 역할을 각자 담당하여 대화 형식으로 봉독하거나, 일반적인 형식의 본문이라면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모두 함께 봉독하는 것이다. 말씀 나눔 순서에서는 설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설교라는 명칭 자체가 남성 목회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에 말씀 나눔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하였다. 그래서 설교자를 특정하여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각자 미리 본문 말씀을 숙지한 가운데 자신에게 감동이 되는 내용을 돌아가면서 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이 성경의 해석과 묵상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모두가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응답하시는 특별한 존재임을

자각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한 묵상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손을 잡고 침묵하며 묵상해보도록 한다.

다음 성만찬 예전은 기독교 전통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만찬은 사실상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예전이다. 이에 대해 화이트(White)는 이렇게 설명한다:

> 기독교 예배에서 성찬만큼 유대교적 뿌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또는 그렇게 복잡한 것은 없다. 마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유대 민족이 세운 초석을 기반으로 삼고자 했나 싶을 정도로, 모든 형태의 유대교 공예배는 기독교의 성찬에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이러한 유대교적 근본을 잊어버릴 때마다, 성찬의 실제와 경험이 왜곡되고 오해되어 왔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진정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유대교의 기여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대교의 성전 예배와 회당예배, 가족 식사는 특히 중요하다.[150]

이처럼 유대교적 뿌리를 두고 있는 성만찬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수정되거나 보완되어 갔다. 특히 사도전승에 의하면 성만찬과 애찬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더 나아가 기독교가 제국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서 성만찬 예전은 급속도로 제도화되어지고 구체적인 형식을 갖추게 되면서 완전한 식사로서 주의 만찬은 중단되었다고 생각된다. 어쩌면 이는 유대교적 뿌리를 두고 있는 성만찬에서 귀중한 유산인 가족식사 개념을 상실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화이트(White)는 사도전승 자료를 바탕으로 "애찬은 참석한 성직자와 함께 때때로 사적인 후원자들이 준비하는 교회의 저녁 식사였다"[151]고 말한다. 이는 초대교회부터 이미 완전한

---

[150] White,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기독교 예배학 개론*, 332.
[151] White, 340.

식사로서 주의 만찬인 성만찬이 위계적인 구조로 변질되어지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에 의하면, "성만찬은 개인들에게 그저 흩어져 있는 회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어 하나 됨을 경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152]고 한다. 이러한 성만찬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묘사한 것과 일치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떠한 지체도 우월한 위치에서 다른 지체를 억압하고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는 교회가 위계적이고 지배적인 구조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성만찬 역시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는 하나 됨의 축제로서 위계와 지배적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 위계적이고 지배적 구조인 한국교회 성만찬 전통을 해체하고 페미니스트 영성 훈련의 형태로 변화시켜 수평적인 가족 성만찬 예전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완전한 식사로서 주의 만찬인 아가페(*agape*) 식사 또는 애찬(love feast)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 아내만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은 음식을 준비하는데 동참하고, 또한 모든 가족 구성원은 음식을 준비할 때부터 마지막 공동 축도까지 앞치마를 입고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식사 준비와 앞치마가 여성만의, 특히 목회자 아내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한다. 이후 식사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성만찬으로 초대를 진행한다. 그런데 성만찬으로 초대는 대부분 남편 목회자가 교회에서

---

[152] James F. White, *Sacraments as God's Self-Giving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trans. 김운용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8), 122.

집례하기 때문에 목회자 아내와 그 자녀들은 항상 성만찬을 초대받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애찬 이후에 목회자 아내나 자녀들이 가족들을 초청한다는 의미를 담아 성만찬으로 초대를 진행한다. 성만찬 제정사는 수평적인 예식이 되도록 각자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동시에 제정사를 합독한다. 성령 임재의 기원 역시 전통적으로 남성 목회자가 빵과 포도주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지만, 성만찬 제정사에서 각자 빵과 포도주를 따로 준비하여 진행하였듯이 성령 임재의 기원도 각자에게 배치된 빵과 포도주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한다. 주님의 기도는 여성들의 주기도문을 활용하여 남성 편향적인 주기도문이 되지 않도록 보완한다. 분병례의 경우도 남성 목회자에 의해서 이루어졌기에 빵은 목회자 아내나 자녀들이, 포도주는 남편 목회자나 자녀들이 진행하도록 한다. 분병과 분잔에서 분병은 서로가 빵을 먹여주면서 일방적인 남성 목회자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하며, 포도주는 한 그릇에 담아 모두가 돌아가며 일정량을 마시는 것으로 한다. 이후 성만찬 찬송을 하고, 감사기도 할 때 모두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공동 축도 역시 목회자 중심으로 축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를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공동으로 손을 잡고 기도한다.

이러한 수평적 가정 예배 훈련은 목회자 아내를 비롯해서 남편 목회자와 그 자녀들에게도 페미니스트 영성을 형성하도록 하여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하나의 통로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남편 목회자가 이를 통해 가부장적인 한국교회의 예배 가운데 위계와 지배 전통을 해체하는 주체로 세워지도록 만드는 훈련이 될 것이다. 또한 목회자 아내가 본래 나, 한 여성이자 한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남편 목회자가 돕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 것이다.

〈표7〉 수평적 가정 예배 순서지

1. 말씀 예전 Liturgy of the Word

침묵기도 ······ 다같이

촛불점화 ······ 최연소자부터 역순

찬　　송 ······ 다같이

대표기도 ······ 최연소자

성경봉독 ······ 이야기형식본문: 역할극 / 일반본문: 한 구절 씩

말씀나눔 ······ 다같이 돌아가며

묵상기도 ······ 다같이 손을 잡고

2. 성만찬 예전 Liturgy of the Eucharist

애찬준비 ······ 다같이

애　　찬 ······ 다같이

성만찬으로의 초대 ······ 목회자 아내 또는 자녀들

성만찬 제정사 ······ 다같이

성령 임재의 기원 ······ 각자의 빵과 포도주에 손을 얹고 다같이

여성들의 주기도 ······ 다같이

분병례 ······ 빵: 목회자 아내 또는 자녀들 / 포도주: 남편 목회자 또는 자녀들

분병과 분잔 ······ 분병: 서로 먹여주기 / 분잔: 서로 돌아가며 마시기

성만찬 찬송 ······ 다같이

성만찬 후 감사기도 ······ 다같이 손을 잡고

공동 축도 ······ 다같이 손을 잡고

Chapter V

결론 및 제언(Conclusion and Suggestion)

예전부터 목회자 아내가 힘들고 어려운 위치라는 것을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아내를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 나와는 아직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나에게 체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힘들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체감의 정도가 아니라 위기로 다가왔다. 왜냐하면 내가 목회자가 된 이상 나의 아내는 이제 목회자의 아내로서 살아가야 하며, 예전부터 접했던 목회자 아내의 고충이 고스란히 나의 아내에게 일어날 일들이었고, 실제로 이미 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의 영성 형성 강의를 수강하던 중 다른 목회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각자 아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고충과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보통의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는데, 목회자 아내 위기는 곧 목회자 위기이며, 목회자 위기는 교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은 나로 하여금 한국 목회자 아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고,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이를 위해서 나는 여러 연령의 6 개 교단 소속 목회자 아내 9 명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하고, 가정과 교회에서의 경험을 심층 면담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서 한국 목회자 아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지 알 수가 있었다. 첫째, 한국 목회자 아내들은 의존적인 태도, 보조 역할이라는 인식, 전통적인 사모상을 요구하는 환경으로 인해 가부장제에 내재화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가부장제에 이미 노출되어져서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정체성이 본래의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목회자 아내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착취 대상이 되거나 무시와 배제 가운데 주변화를 경험하면서 대상화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곧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도구화 되어진 존재가 되었음을 말한다. 셋째, 목회자 아내들은 강요된 침묵, 개인적인 시간 박탈, 억눌린 감정, 판단 받는 영성 생활로 인해서 정체성이 억압당하고 있었다. 한 여성이자 인간으로서 존중받기 보다는 남편이 목회자라는 사실에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성도들의 직간접적인 억압으로 인해 자신을 잃고 있었다. 넷째, 아내, 목회자 아내, 어머니, 부교역자 등 자발적인 역할 갈등과 비자발적인 역할 갈등 가운데 혼란을 겪는 정체성으로 인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뇌하고 있었다. 특히 역할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면, 상당히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힘들어했다. 마지막 다섯째는 이러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목회자 아내들은 영성 훈련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었고, 상당히 진전된 영성 훈련의 방편들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 훈련은 남성 중심의 영성이 깊이 뿌리 박혀 있기에 이 또한 한계가 있는 돌파구라고 여겨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나는 가부장적인 한국 가정과 교회에서 목회자 아내들이 자기 자신만의 주도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한 여성이자 한 인간으로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아내들을 위한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이론을 언급했는데, 첫 번째는 페미니스트 신학이다. 페미니스트 신학은 '여성도 인간이다'라는 것을 기반하고 있다. 즉 여성 인권과 남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 아니라 남성처럼 여성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도록 하는 것이 페미니스트

신학의 이론적 배경인 것이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신학은 두 가지 형태 신학과 연계가 되는데, 첫 번째는 비판 신학이고, 두 번째는 해방신학이다. 이 두 신학과 페미니스트 신학은 연계되어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은 여성, 특히 목회자 아내에 대한 억압과 고충에 대해 비판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 가운데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여성 경험, 즉 목회자 아내의 해방 경험에 주목하도록 만드는 이론적 기틀이 되었다. 두 번째는 페미니스트 영성이다. 이는 기존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영성이 남성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전통이자 영성이라는 점을 비판하고, 이를 여성 경험과 영성으로 주목하도록 해주는 관점이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영성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신 젠더에 대한 이해이다. 이는 기존 기독교 전통과 영성이 신을 남성 중심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통해 기독교의 교리와 영성이 교회에 자리 잡으면서 여성들에게 가부장제에 내재화를 경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둘째는 여성의 억압과 해방 경험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서에는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요소와 해방적인 요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를 독점하고 있는 남성 목회자들로 인해 억압 도구로 성서가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으로 여성 해방 경험이 성서에 녹아져 있는데, 이를 발견하고 회복하는 것이 페미니스트 영성의 과제임을 말한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위계와 지배 전통 해체이다. 기존의 기독교 전통이 위계적인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히 이는 지배구조 형태로서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임을 말하고 있다. 특히나 기독교 예식 가운데 이러한 위계적이고 지배적인 구조가 형성되어져 있어서 은연중에 여성들은 남성에 의해서 하층의 위치에 놓여 있는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해체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식을 제안하고 있다.

나는 두 가지 이론적 기틀을 바탕으로 목회자 아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한 여성이자 한 인간으로서 자기 주도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페미니스트 영성 훈련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세 가지 페미니스트 영성 훈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 젠더 이해를 기반으로, 여성 이미지 상징언어를 통한 기도 훈련이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 훈련을 제안했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 전통 기도문을 페미니스트 영성 관점에서 수정하여 다시금 기도문을 작성하고 기도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시편 쓰기이다. 시편은 성서에 나타난 대표적인 기도로서 기자의 감정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글이다. 이러한 시편을 바탕으로 억압받는 목회자 아내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여성 억압과 해방 경험을 모두 담고 있는 성서를 페미니스트 신학 관점으로 읽고, 이를 래버린스 묵상 방법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성서에는 여성이 억압당하는 본문이나 여성 해방을 경험하는 본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를 페미니스트 신학의 관점으로 읽고 묵상해보는 것인데, 래버린스라는 묵상 방법을 활용해보는 것이다. 래버린스라는 미로를 그리고 볼펜으로 이 미로를 따라 그리면서 페미니스트 신학 관점으로 읽은 성서 내용을 바탕으로 목회자 아내로서 억압받았던 경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나를 묵상해보는 훈련이다. 셋째, 위계와 지배의 전통을 해체하는 방법으로 수평적 가정 예배 훈련을 제안했다. 이는 목회자 아내만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남편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동참하여서 페미니스트 영성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훈련이다. 이를 위해서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 형식을 따라 진행하되 세부적으로 말씀 예전과 성만찬 예전 가운데 남성 중심적인 영역과 성직자 중심적인 영역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수평적이고 페미니스트 신학 관점의 예전으로 탈바꿈하여 예배 경험을 하도록 안내했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영성 훈련은

가부장적인 가정과 교회에서 억압받는 목회자 아내들에게 한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주도적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나는 본 연구를 통해 한국 목회자 아내들은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가정과 교회의 현장 속에서 남편 목회자와 성도들로부터 직간접적인 억압에 노출되어져 있고, 이러한 억압은 결국 목회자 아내들이 본래의 나,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원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페미니스트 영성 훈련을 제안했다. 왜냐하면 목회자 아내에 대한 수많은 논문 중에서 페미니스트 신학 관점으로 목회자 아내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적고 거의 모든 자료가 심리학적인 분석과 목회상담 형식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영성 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는 기독교 전통에 입각한 영성 훈련에 불과했기에 결국 이는 남성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기독교 영성을 주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사실상 목회자 아내들에게 가부장제를 내재화시키는 영성 훈련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영성 훈련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특수한 영성 훈련을 고민하여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목회자 아내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크나큰 도전이자 페미니스트 영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영성 훈련이 목회자 아내 개인에게만 국한되어져서 스스로 가부장적인 가정과 교회에 미시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드는 훈련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거시적 차원의 대안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연구 참여자 F 와의 심층 면담 가운데 알게 된 것으로 A 교단에서는 목회자 아내를 '사모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다. 이는 목회자와 결혼한 뒤에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이름이 가려져 본래의 나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한국 목회자 아내들에게 교회가 연대할 수 있는 거시적 차원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으로 페미니스트 영성 훈련을 교회와 연대하여 목회자 아내를 비롯해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하여 훈련한다면, 목회자 아내만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페미니스트 영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견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차후에 가부장적인 가정과 교회의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시적인 페미니스트 신학 관점의 연구가 더 구체적으로 개발되고 연구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를 통해 목회자 아내들에게 조금이나마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페미니스트 영성을 기반으로 한 이 영성 훈련을 통해 성차별주의와 가부장적 전통과 역사에 의해 왜곡되고 분열된 여성들, 특히 목회자 아내들이 그러한 왜곡을 넘어서서 한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기를 바란다."[153]

이번에 나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었다. 가장 큰 유익은 틀에 박힌 관점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타자를 포용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풍토보다는 일단 어떠한 프레임을 씌우고 비판하고 재단하는 풍토가 만연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과정은 나로 하여금 가치관의 변화를 주었다. 일단 타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이해해보려는 생각 훈련을 하게 만들었고, 주변에서 소외당하고 외면 받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나의 목회 가운데 텍스트(text)에 갇힌 목회가 아니라 컨텍스트(context)의 장으로 확장되어지면서 현장성 있는, 살아 움직이는 목회가 되도록 이끌어주었다. 또한 숲을 보던 눈이 나무를 보는 눈으로 전환되는

[153] 강남순, *21 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240.

훈련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가볍게 보고 지나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바라보고 고뇌하게 함으로써 목회 대상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본 연구는 단순히 목회자 아내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외면 받는 이들에 대해 고뇌하고 돌아보게 만든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끝으로 이 논문 프로젝트를 쓰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응원해주신 부모님과 누구보다도 나와 함께 고생해준 아내 강주연에게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연구 과정 가운데 태어난 나의 사랑하는 딸 양세린에게 언젠가 이 논문을 읽어줄 날을 고대한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쓸 때면 곁에 앉아서 지켜보던 나의 반려고양이 검봉이와도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

〈부록 I: 연구 참여 동의서〉

Appendix I: Informed Consent Form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 91711)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양희열 목사입니다. 저는 “한국 목회자 배우자들의 기독교 페미니스트 영성과 영성훈련 탐구: 치유와 변화를 위한 질적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담당하시는 김남중 교수님의 지도 아래 수행되고 있습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교수님과 연락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메일(njkim@cst.edu)로 연락하시거나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 동안 한국 목회자 아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겪은 경험의 본질을 이해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페미니스트 신학을 기반한 영성훈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페미니스트 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경험을 듣고자 지인 목회자와 목회자 아내를 통해 알게 된 제3의 목회자 아내들과 심층 면담을 실시할 것입니다. 귀하의 참여는 가정과 교회에서 목회자 아내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회자 아내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페미니스트 영성훈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특별한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심층 면담 도중에 개인의 경험 가운데 상처로 남아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불쾌감이 들 수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Zoom’ 어플로 심층 면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약간의 피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신다면, 귀하는 인터뷰에 약 1시간 정도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혹 인터뷰 과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할 내용이 있다면 재차 인터뷰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진행과정 동안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고 필사될 것입니다. 녹음되는 모든 내용과 필사본은 논문 연구에 사용될 것이고 연구 기간(~2022년 5월 1일) 이후에 3~5년간 학술지나 학회 발표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되 그 이후에는 모든 자료를 폐기할 것입니다. 혹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이름, 이메일, 다른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자료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만 보관되고 연구 종료 후 바로 폐기될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 참여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자도 연구 참여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성함과 개인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기재함으로써 귀하의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연구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귀하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때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가 연구 참여를 철회할 때,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은 귀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만약 연구참여를 원하시지 않는다

면 단순하게 참여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이메일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면 연구자 양희열 목사의 전화번호 ***-****-**** 혹은 이메일 huiyeol.yang@cst.edu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왔으며 이 연구의 연구번호는 2021-003 입니다.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윤리 심사위원회 회장, 김두영 박사의 연락처인 ***-****-**** 혹은 viaster@hanmail.net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익명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희망하는 인터뷰 방식 (대면 인터뷰 / 비대면 인터뷰)

____
연구 참여자의 이름

____
연구 참여자의 서명

____
날짜

____
연구자의 이름

____
연구자의 서명

____
날짜

____

귀하의 기록을 위하여 이 문서의 사본이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부록 II: 여성들의 주기도문[154]〉

Appendix II: Women's Prayer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시는 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당신의 뜻에 우리의 삶이 기억되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날 당신의 은총이 깃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욕심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기 위해

죄지은 자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알아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힘 있는 자의 넘어짐을 작은 자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여성을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 유혹하는 존재라고 여기는

뿌리 깊은 혐오와 차별 속에서 우리를 속히 구하여 주십시오.

차별 없는 나라와 주변으로부터의 권세, 평화의 영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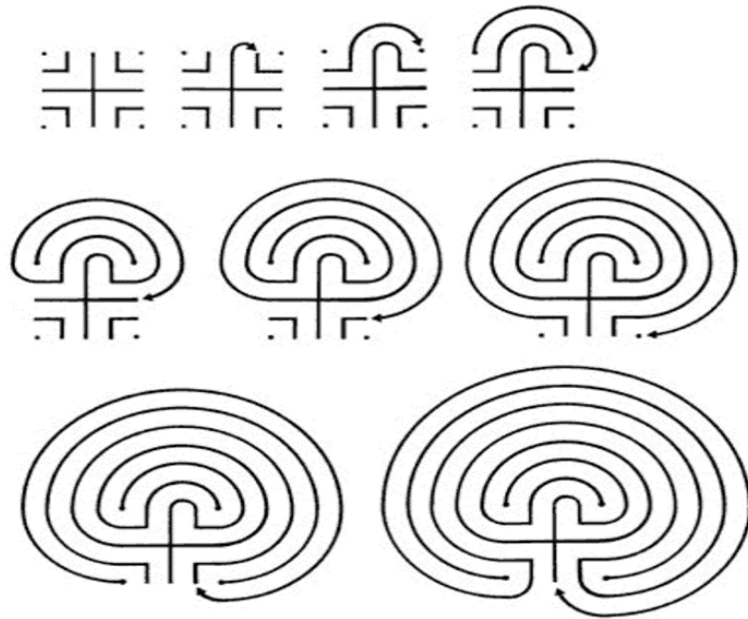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

[154] 2021년 5월 24일, 강남역 여성 혐오범죄 5주기를 맞아 16개 단위에서 함께 준비해 드린 여성주의 연합예배에 사용된 것으로 여성의 시선과 경험을 반영하여 주기도문을 재해석한 기도이다.

〈부록 III: 래버린스 미로 그리는 방법과 완성본〉

Appendix III: How to draw Labyrinth Maze and Finished Version

1. 래버린스 미로 그리는 방법

2. 완성본

〈부록 IV: 연구 참여자들의 피드백〉

Appendix IV: Feedback from Research Participants

연구 참여자	피드백 내용
연구 참여자 A	평소 젠더, 페미니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성우월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동등하게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가치있는 존재로 서로 인정해주는 가치관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유익했던 점은 나름대로 사모로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모들이 가부장적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과도한 요구와 억압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갈등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결론은 그리스도안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재임을 깨닫고 전통과 편견의 문화 속에서 사모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가야 되며 이를 위해 배우고 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구 참여자 B	가부장적인 목회 현장 속에서 겪고 있는 상처나 아픔, 정체성의 문제로 갈등하는 사모들의 문제를 인식하였다. 그리고 심층 면담을 통해 그 탈출구로 페미니스트 영성훈련을 제시함으로써 목회자 아내들이 자기 주도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재정립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면서 한국 목회자와 교회에 좋은 영향이 미치길 원하는 간절함이 보인다.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였으며, 목회자 아내인 내가 평안해지면, 가정엔 더 큰 평화가 깃들고, 교회는 더욱 은혜가 되리라 생각한다. 한편으로 사모는 목회자가 신학과 실천목회에 있어 전문가임을 인정할 필요성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모의 자리에 부르셨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과 쓰실 자를 준비(훈련) 시키시는 분임을 사모들은 기억하며, 자신이 나태하거나 거절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 참여자 C	창조된 만물은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신성하다. 욕심에 의해 나뉘고,

	억압당하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구원을 경험하곤 했으나 기독교 사회에서 형성된 '사모'라는 소외되고 억압된 계층에는 무관심하고 잔혹하기 했다. 본 논문은 사모라는 존재를 그늘에서 헌신을 강요받는 계층에서 한 인간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이며, 그리스도께서 내미는 구원의 손이라고 생각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다. 논문을 통하여 사모 자신만이 아니라 기독교 사회에서도 새로운 시각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참여자 D	본 논문 읽으면서 다른 사모님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며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하고 화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영성훈련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도문, 여성관점으로의 성경읽기, 가정예배를 통해 목회자의 인식까지 변화되도록 만들어가는 프로세스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자아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성도님들과 동일한 훈련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적용되면 교회안에서 자존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도움될 것 같아요. 다만, 기도문을 페미니스트 영성관점으로 수정하는 것과 말씀을 페미니스트 신학관점으로 읽는 것은 몇명이라도 사모 소그룹으로 하는게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가부장제에 내재화된 분들이나 의존적인 분들은 혼자 하기가 어렵고 지속성이 불분명할 것 같아 작은 인원이라도 몇명이 함께 훈련한다면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가 아내를 도구로만 생각하지 않고 존중하기만해도 많이 보호가 될 것 같네요.
연구 참여자 G	숙제를 받은 기분입니다.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에 긍정하면서도 지금까지 알고 지키던 신앙에 충돌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바로서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동역자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H	교회 안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대상으로 여성을 인정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천천히 따라가고

	있음을 느낀다. 급진적이고 개혁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류도 있긴 하지만 기독교의 전반적 분위기가 바뀌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논문이 쓰인 것에 감동받았고 많은 이들에게 읽히면서 현대교회의 현주소를 많이 느끼고 깨닫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면 좋겠다. 목회자 아내들의 영성 훈련을 위한 실천적 제안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목회자 아내들의 영성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제한과 한계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만이라도 열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의 젠더감수성을 위한 교육이 활발히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한국여성신학회,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등 여성주의 예배를 연구하고 실천적 행동을 하는 단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억압받고 소외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함께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여성이 억압받고 소외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Bibliography)

[한서]

강남순. *21 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경기: 동녘, 2018.

______. *젠더와 종교*. 경기: 동녘, 2018.

______. *페미니즘 앞에 선 그대에게*. 경기: 한길사, 2020.

______. *페미니즘과 기독교*. 경기: 동녘, 2018.

김영순, 김진희, 강진숙, 정경희, 정소민, 조진경, 조현영, 최승은, 정지현, 오세경, 김창아, 김민규, 김기화, and 임한나. *질적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2018.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2.

______. *질적연구방법론 Ⅱ :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김혜란. *상호의존성: 포스트식민주의 여성주의 실천신학*. 서울: 동연, 2020.

목창균. *현대 신학 논쟁*. 서울: 두란노서원, 2010.

민가영. *여성학 이야기*. 서울: 책세상, 2007.

박남희. *레비나스, 그는 누구인가*. 서울: 세창출판사, 2019.

박 만. *최근신학연구*. 서울: 나눔사, 2002.

신경림, 조명옥, and 양진향.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and 김한별.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개정판 2nd Edition*. 서울: 박영스토리, 2018.

이민지. *언니네 교회도 그래요?*. 경기: 들녘, 2020.

이재경, 조영미, 민가영, 박홍주, 이박혜경, and 이은아. *여성학*. 서울: 미래인, 2014.

이희원, 이명호 윤조원, 박주영, 최성희, 연점숙, 박미선, 오은경, 이선주, 태혜숙, 박정오, 조선정, 김종갑, 박혜영, 장정희, and 정문영. *페미니즘: 차이와 사이*. 경기: 문학동네, 2012.

장필화, 이임윤경, 이상화, 김찬호, 김엘리, 양민석, 이명선, and 조성남. *페미니즘, 리더십을 디자인하다*. 경기: 동녘, 2017.

정수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서울: 서유재, 2018.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서울: 교양인, 2013.

최만자. *여성의 삶, 그리고 신학*. 서울: 기독교서회, 2005.

[번역서]

Akinari, Tomasu. *賢者の思想本　西洋の思想家編 하룻밤에 읽는 서양철학*. Translated by 오근영.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19.

Downey, Michael. *Understanding Christian Spirituality 오늘의 기독교 영성 이해*. Translated by 안성근. 서울: 은성, 2001.

Foster, Richard J. *Celebration of Discipline 영적훈련과 성장*. Translated by 권달천 and 황을호.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4.

Friedan, Betty. *The Feminine Mystique 여성성의 신화*. Translated by 김현우. 서울: 갈라파고스, 2018.

Gilligan, Carol. *Joining the Resistance 담대한 목소리*. Translated by 김문주. 서울: 생각정원, 2018.

Harper, Steve. *A Pocket Guide To Prayer 매일기도서*. Translated by 정명성. 서울: kmc, 2013.

Thompson, Marjorie J. *Soul Feast: An Invitation to the Christian Spiritual Life 영성형성 훈련의 이론과 실천: 기독교 영성생활로의 초대*. Translated by 최대형. 서울: 은성출판사, 2015.

White, James F.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기독교 예배학 개론*. Translated by 김상구 and 배영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______________. *Sacraments as God's Self-Giving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Translated by 김운용.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8.

Wink, Walter. *Engaging the Powers: Discernment and Resistance in a World of Domination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지배체제 속의 악령들에 대한 분별과 저항*. Translated by 한성수.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13.

Young, Iris Marion.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Translated by 김도균 and 조국. 서울: 모티브북, 2018.

[저널 및 논문]

강남순. "종교.가족.페미니즘." *기독교사상* vol. 41, no. 10 (October 1997): 143-157.

______. "전통적 가족의 해체와 그 재구성." *기독교사상* vol. 45, no. 5 (May 2001): 77-92.

강남식, 최희경, and 김정선. "가부장제." *여성과 사회* 3 (April 1992): 346-350.

김경은. "개신교 영성훈련의 현재와 전망."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2 (October 2016):193-219.

김선하. "인격적 정체성과 자기성." *철학논총* 31 (January 2003): 19-41.

김애란. “교회 부교역자 아내의 역할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MA thesis, 고신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2011.

김영수. “소도시의 소형교회 사모들의 사역과 역할에 대한 질적 연구.” *신학과 실천* 51 (September 2016) :223-250.

김은정. “아시아 여성의 영성.” *한국여성신학* 29 (March 1997): 53-66.

김정숙. “21 세기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신학의 지형도.” *신학과세계* 48 (June 2010): 95-124.

김희영. “마리아 해리스(Maria Harris)의 여성영성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57 (June 2018): 1-32.

나인선. “페미니스트 신학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가?: 삼위일체 예배를 통한 예배언어의 실행(Performance-doing)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9 (January 2016): 185-230.

두은영 and 최수진. “간호조직에서의 억압에 대한 개념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21, no. 4 (April 2021): 498-508.

박충구. “비판신학으로서의 여성신학.” *한국여성신학* 27 (September 1996): 98-100.

성윤희 and 정주리.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차별적 인식과 남성 성역할 갈등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vol. 20, no. 1 (June 2019): 547-567.

손승희. “한국교회와 여성의 영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5, no. 1 (May 1989): 117-156.

양미강. “한국 페미니스트 목회를 위한 제안.” *한국여성신학* 40 (December 1999): 54-72.

윤철호. “페미니스트 성서해석학.” *장신논단* 12 (December 1996): 244-275.

이혜순. “한국여성신학의 영성.” *한국여성신학* 15 (September 1993): 34-48.

임철규. “해방신학: 해방의 신학적 의미와 실천.” *이론* (October 1993): 198-234.

주희은 and 박승민. “목회자 사모가 인식하는 결혼 만족도와 역할 스트레스와의 관계: 영적 안녕감의 조절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vol. 29, no. 3 (August 2018): 291-328.

진미리.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Elisabeth Schussler Fiorenza)의 해방의 비판적 페미니스트 전략에 있어서 비판개념의 특성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한국여성신학* 80 (February 2015): 138-157.

추수경. “목회자 사모의 영성훈련에 관한 연구.” MDiv thesis,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2008.

홍용인.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의 돌봄(Caring)의 개념으로 본 목회자 아내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 (December 2010): 347-378.

황미경. “부교역자 사모의 정체성을 위한 상담 연구.” *연세상담코칭연구* 9 (March 2018): 113-132.

Canda, Edward R. "Spiritual Connections in Social Work: Boundary Violations and Transcendence." *Journal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Social Work* vol. 27, no. 1-2 (June 2008): 25-40.

Fiorenza, Elisabeth Schussler. *Toward a Feminist Biblical Hermeneutics: Biblical Interpretation and Liberation Theology 여성해방의 성서해석학을 향하여: 성서해석과 해방신학*. Translated by 유연희. *세계의신학* 2 (April 1989): 79-96.

Park, Woon Song. "Understanding Korean American Pastors' Wives: A Feminist and Cognitive Behavioral Reconstruction of Self-Identity." DMin projec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2018.

[웹사이트]

Thomas, Shari. "10 Things the Woman Married to Your Pastor Wants You to Know." *TGC*. Last modified August 10, 2018. https://www.thegospelcoalition.org/article/10-things-woman-married-pastors-know/.

곽승연. "목회자와 결혼했을 뿐인데, 나는 '신앙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뉴스앤조이*. February 28, 2020.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65.

강창욱. "목사님, 아내에게도 봉사 좀 하시죠." *국민일보*. September 28, 2011. http://m.kmib.co.kr/view.asp?arcid=0005401309.

장 열. "사모의 한숨,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중앙일보*. February 16, 2015.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79419.

국립어학원 표준국어대사전. "사모." *문화체육관광부*. Accessed April 13, 2021. https://www.korean.go.kr/front/search/searchAllList.do.

________________________. "억압." *문화체육관광부*. Accessed July 5, 202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word_no=460934&searchKeywordTo=3.